



 **더불어 함께 일구는 문화**

2006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CONTENTS

## 01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과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1.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 7
2. 공모지원사업과 문화정책의 목표 ■ 9
3. 후기 자본주의 하 문화예술의 상황과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 12
4.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사회적 의미 : 문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 17

## 02 2006년 정기 공모지원사업 개요

1. 공모지원사업의 목표 및 개요 ■ 24
2. 2006년 공모지원사업의 변화 ■ 26
3. 지원사업의 지원현황 및 분포 ■ 28

## 03 2006년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의 목적 ■ 38
2. 모니터링의 종류 ■ 39
3. 모니터 구성현황 ■ 41
4. 모니터링 대상사업 ■ 45
5. 모니터링 평가지표 ■ 46
6. 모니터링 절차 ■ 55

## 04 2006년 진흥사업 및 모니터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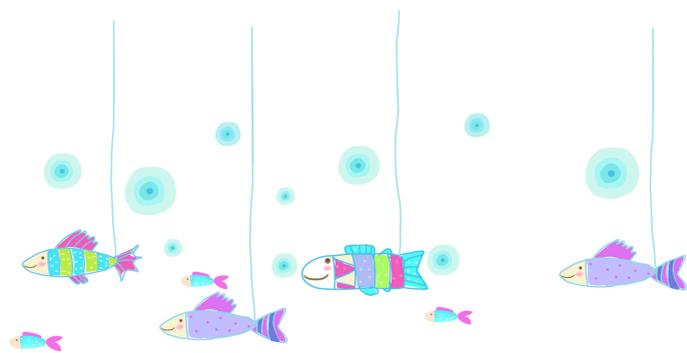
1.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근거 : 경기문화비전 2007 ■ 60
2.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66
3.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평가 ■ 76

## 0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지원공모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 112
2.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 113

●-「편집후기」







##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과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 이

1.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2. 공모지원사업과 문화정책의 목표
3. 후기 자본주의 하 문화예술의 상황과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4.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사회적 의미: 문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과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문화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문화 융합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문화다양성이 보장되는 관용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대안적 흐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지구화의 가속화로 인해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민국가(nation-state)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국가 간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은 증대하여,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화적 개발 내지는 문화적 발전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각 국민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 국민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사업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진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원된 사업이 전체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이 의도한 목적에 얼마만큼 근접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사업 모니터링은 지원대상을 행정적으로 감시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원 대상이 된 각각의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얼마만큼 충실히 진행되어, 전체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지원사업이 경기도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 보고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미를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진흥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1. 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직접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진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환경의 변화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화환경의 변화를 파악해야 이를 토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화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 1. 1 문화개념의 변화와 문화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문화예술의 위기 상황

문화 개념은 한편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는 경제, 정치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회의 일부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왔고, 문화는 경제 영역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었다. 하지만 최근 문화와 문화 이외의 영역, 즉 경제 영역과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은 강화되고 있다.

과거 인문적으로만 이해되던 문화와 달리 경제와 융합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혹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은 21세기의 중요한 신성장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창조산업의 확산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문화산업/창조산업은 문화가 경제처럼 유용한 영역이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화산업/창조산업의 확대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즉 문화적 가치가 환금적 가치로 환원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은 긍정적이고,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회적 풍조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순수기초예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예술의 응용영역에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적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 어떤 사회영역에서보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한편으로 문화예술산업이 확장되면서 미술품경매시장에서 미술품에 대한 최고 가격은 갱신되고, 스타급 문화예술인들은 거대한 부를 획득하지만 동시에 최저 생계비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문화예술인 또한 막대한 규모로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2 문화적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대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경제적 생존보다는 품위와 의미 등의 주관적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 사회도 경험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회 층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였다면, 최근 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풍요로움과 높음의 중요성만큼이나, 문화적인 생활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위할 수 있느냐가 개인의 사회적인 삶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경향의 등장과도 맞물려있다.

이제 삶의 질은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가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정도로 문화적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매우 크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수요는 문화예술분야의 공급과 조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편에서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의 향유층과 괴리되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은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사회적으로 점차 증대하고 있는 문화적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증대된 욕구에 부합하는 공공정책인 것이다.

주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근면을 중요시 여겼던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창조성을 중요시 여기는 후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이동이 급격히 나타날 것이기에, 노동/생산중심의 정책에서 문화/여가 정책은 과거와 달리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한 두 가지 문화환경의 변화는 매우 모순적으로 작용한다. 문화의 산업화는 그 자체로 부정적 변화라 할 수 없지만, 문화의 산업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기초문화예술은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문화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문화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일방적인 문화의 산업화에 의해 위협에 처한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



은 동시에 커진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매우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관계에 의해 창출된 문화예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적 채널을 통해 기초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은 최근 목격할 수 있는 모순적인 문화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급격한 상업화로 인해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을 지원, 보호, 육성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급증한 문화적 소비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대하려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문화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 2. 공모지원사업과 문화정책의 목표

공모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문화정책의 거시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지니는 문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정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모지원사업의 위상, 그리고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기초에 주목하고 문화정책의 변화된 기초 속에서 공모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화정책(cultural policy)은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으로 정책이 포괄하는 영역과 대상이 다른 공공정책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가변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전까지 문화정책의 대상은 문화예술인에 국한되어 있었고, 문화정책의 최고 목표는 협의의 문화예술의 진흥이었다면, 최근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하여 각국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추이에 따르면 문화정책은 더 이상 협의의 문화예술인을 정책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최근의 문화정책의 추이에 따르면, 문화정책의 대상은 협의의 문화예술인에서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 다루는 영역 역시 협의의 문화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정책을 “창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정책이며, 지역사회와 도시 또는 기업과 산업에 내재하는 문화자원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것들을 창조환경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정책”<sup>1)</sup>이라는 정의는 문화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문화정책을 “문화적 필요(cultural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식적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일의 총체”<sup>2)</sup>라 파악하면서 문화정책의 대상영역을 매우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화정책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할수록 문화정책의 체계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정책의 대상과 주체가 확장되면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목표는 추상화되고 구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정책의 대상영역을 확장시키면 시킬수록 그와 동시에 문화정책의 체계를 수립하는 일이 급선무로 부각된다.

문화정책의 서열은 문화정책의 이념을 제시하는 철학-정책(policy)-프로그램-사업(project)으로 구성된다. 문화정책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철학-정책-프로그램 사이의 일관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화된 문화정책이란 정책(policy)의 목표와 근거를 제시하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 문화정책의 체계적 철학이 없으면, 지원의 근거가 희박해지며, 이렇게 되면 ‘철학’ 없이 그때그때의 편이적인 목표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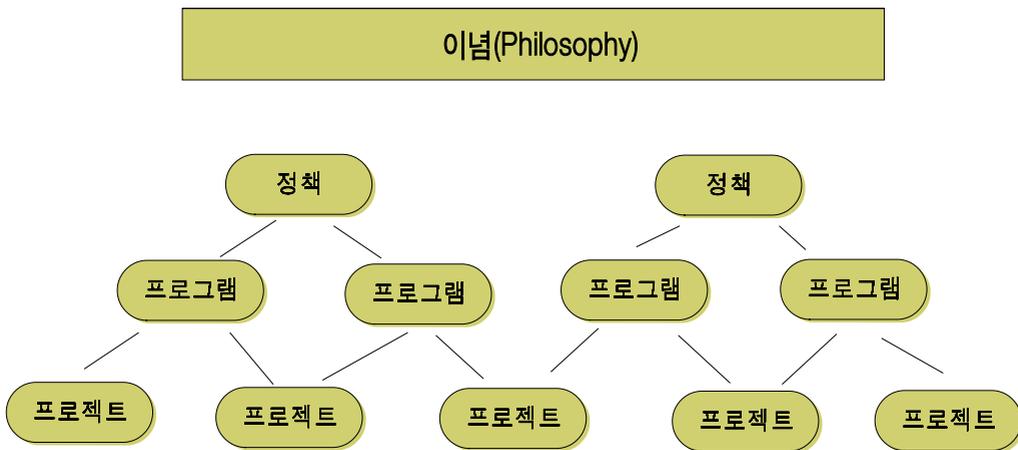


그림 1 문화정책의 서열

1) 이케가미 준, 『문화경제학』, 45쪽에서 재인용.

2) UNESCO,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 1969, 8.



이러한 문화정책의 체계에 따라 파악해보자면 경기도가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최고 목표는 이념(philosophy)이며, 이 이념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정책(policy)이 도출되며,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나타난 것이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과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위계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가주의적 문화통제(policing culture)가 아닌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인권이자 보편적 인권에 속하기에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문화정책의 수혜대상은 문화예술인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전체 시민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국가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보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정책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장영역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의 핵심인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공공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협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자, 국가의 위계질서에 의한 강제가 아닌 국가와 시민사회의 '수평적인 타협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도는 과거 서울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중심으로서 인구경제·사회·교육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 문화예술 분야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 변화는 당연히 경기도 문화예술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요구와 변화된 욕망으로 표현되고 있다. 2007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예술을 관람할 때 도민들은 '관람비용의 적절성', '예술행사 내용 및 수준' 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문화예술 행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관람비용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작품의 질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정책적인 개입은 지역적 구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의 특성상 31개 시군이 상호 구별되는 문화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한 31개 시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영화의 경우 거주시/군(51.8%)에서 관람하는 비율이 높지만, 연극, 미술, 클래식음악/오페라 등은 서울 등 경기도 외 지역에서 관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도내에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양시, 고양시는 거주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남양주, 광명, 구리, 동두천, 의정부, 의왕, 하남, 포천, 평택은 서울/기타 지역에서 관람률이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지역민과의 ‘협치’의 관점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와 행사에의 참여 열망과 창작을 통한 자기실현 욕망의 구체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참여적인 시민사회에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협치’ 과정을 통해 경기도민과 문화생산자의 문화예술 욕구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 3. 후기 자본주의 하 문화예술의 상황과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 3. 1 자율적 예술의 등장과 예술의 정당화 문제

현재 우리가 거창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취급하는 예술이란 단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지칭하는 소박한 개념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격상되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술이란 단어의 이러한 격상은 반가운 일이겠으나, 예술가는 예술 개념이 격상되면서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예술/예술가는 정당성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예술은 명증한 개념이 아니라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 되었다. 예술은 인정여부와 가치의 진정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장(field)이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최상의 지위를 차지하는 자율적 예술 개념이 등



장하기 이전, 예술은 분명 쓸모 있는 영역에 속했다. 라스코 동굴벽화는 감상을 위해 제작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동굴벽화는 당시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산 속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아마 이것은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마술의 힘과 관계있다. 현실과 현실의 이미지를 구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동굴 속에 소의 이미지를 그려 소를 주술로 동굴 안에 가두어두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예술은 항상 주술과 결부되어 있었고,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활동은 그렇기에 주술과의 관계에서 항상 쓸모 있는 행위였다. 또한 자율적 예술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현재 우리가 사제, 예언가, 시인, 역사가, 과학자, 예술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은 애초에는 동일한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예술가 또한 근대적 자율적 예술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쓸모 있는 행위의 담지자였다. 자율적 예술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예술의 쓸모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담론은 부재했다. 왜냐하면 예술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 자율적인 영역이 아니었기에 예술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수단에 불과한 예술은 반드시 어떠한 쓸모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율적 예술이 등장하기 이전 예술가는 전문직업적 노동자로서 노동자 개인의 자격으로 가신으로 고용되거나 위촉되었다.

예술가는 자율성 획득을 위한 오랜 투쟁을 통해 미성숙한 존재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탈바꿈하였으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예술이 제례와 의식에 결부되어있을 때 예술은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제례와 의식으로부터 예술이 단절되는 순간 예술은 자신을 정당화해야 했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고유한 질적 속성을 찾아내야 했다. 예술이 후견인 제도에서 판매와 인세 등의 시장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권과 인세를 통해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판매되는 직접적 시장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경향이 등장했다. 시장을 위한 예술 활동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시장을 위한 예술 활동을 배척하는 경향이 등장했다. 이러한 경향은 실용품(object of utility)과 예술(object of art), 장인(craftsman)과 예술가(artist)를 엄격히 구별하는 사회적 용법을 등장시켰다.



### 3. 2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예술이 자율성을 획득하기 이전 예술은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미학 담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예술은 자율성이 없는 현상이었기에, 항상 특정한 목적에 결부된 수단에 불과했다. 그랬기에 예술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담론은 불필요 했다. 미학담론은 자율적 예술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야 발생한다. 이른바 심미주의 또한 근대적 자율적 예술개념이 등장하면서, 예술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정당화 담론의 일부로 등장했다. 예술의 자율성 개념을 옹호하기 위해 ‘예술을 위한 예술 (l'art pour l'art)’이라는 심미주의적 구호는 역사적으로 정당했다.

자율성 개념이 아직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이전, 사람들은 예술을 특정한 목적과 결부시켜 생각했고,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예술은 자신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는 주장은 매우 급진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심미주의의 한계는 예술이 자율성 개념을 사회적으로 승인 받고 난 직후 생겨난다. 예술은 힘든 과정을 통해 자율성 개념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예술이 자율성 개념을 인정받자마자 예술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술의 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독자성, 예술의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는 미학주의적 담론을 역사화 시키고 이외는 별도로 사회학적으로 예술을 취급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미학주의적 해석은 예술 현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치 예술 내부의 법칙은 다른 사회 영역과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독립적인 법칙인 것처럼 과장하는 태도, 즉 미학주의로 귀착되기도 한다. 미학주의자들은 이른바 내재적 관점을 고집한다. 반면 사회학은 예술을 사회적 제도의 일부로 본다. 사회학적 해석에 따를 경우 미학주의적 예술 해석과는 달리 예술 또한 사회적 제도의 일부로 간주된다.

사회학주의적 도전은 미학 내부에 있는 아우타르키 모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미학이 포함하고 있는 고급예술 편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사회학적 해석에 따르면 예술의 가치는 늘 변해왔다. 따라서 예술사는 취미와 평가가 부침해온 역사이다. 어떤 것이 예술로 인정받는가의 문제는 사회적 요인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되는 미적 판단은 학자, 지식인, 비평가들에 의한 사회적 판단에 불과하다. 흔히 예술의 가치의 저장고라고 언급되는 심미성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구축된 범주이다. 이 범주는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자의적이다.



### 3. 3 예술의 자기 정당화와 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유용성)'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경제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대상이나 인간은 '쓸모'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는 어떤 것의 존재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쓸모'가 이러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근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쓸모(유용성)'는 다른 의미를 지녀왔다.

예술이 자율적 현상으로 등장하는 근대사회에서 유용성과 무용성에 대한 고대적 해석은 전도된다. 근대사회에서 경제적 유용성은 사물과 인간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경제적 유용성이 가치의 상위를 차지하는 근대사회에서 예술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예술은 근대사회에서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하거나, 자신의 무용성을 정당화해야 한다. 경제적 유용성이 지배하는 근대사회에서 예술/예술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용성 강제에 반응하는 답론은 세 가지 형태이다.

첫 번째, 예술은 경제적 유용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술 또한 경제적 유용성과 배치되지 않으며, 예술이 경제적 유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술은 경제적 유용성과 심미적 무용성을 모순적 대립으로 파악하고, 경제적 유용성에서 관찰되는 논리(경제적 논리)와 심미적 무용성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논리(심미적 논리)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다. 세 번째, 예술은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예술을 경제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활동으로 파악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

예술의 쓸모를 입증하는 답론은 현재 이른바 문화컨텐츠 답론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한다. 이 답론에 따르면 예술은 쓸모 있는 문화컨텐츠로 가공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쓸모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답론에 따르면 예술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며, 예술에 내재되어 있는 쓸모의 가능성은 컨텐츠 가공에 의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 이 답론에 포섭되며 예술계는 예술을 스스로 문화컨텐츠의 '기초'라고 간주한다. 이른바 '기초예술'이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발상이 담겨 있다. 이러한 답론에 따르면 예술가는 사회적 분업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술가는 문화컨텐츠를 가공하는 사람과 일종의 사회적 분업관계에 놓여 있으며, 예술과 예술가는 또 다른 산업과 사회의 창조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입증한다.

본질주의적 자율성 답론은 쓸모/유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모순적 대립으로 파악한다. 자율성 미



학론에 따르면 유용성과 심미적인 것은 모순적 관계이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예술은 유용성 세계의 피안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 가치는 유용성에 의해 측정될 수 없고 오히려 예술의 가치는 무용성에 있다. 자율성 미학론은 두 가지 형태로 변주된다. 자율성 미학론의 첫 번째 형태는 본질주의적 경향이다. 이 담론은 미학적 담론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고, 다시 규정된 예술의 본질로부터 예술과 예술가를 정당화한다. 이 담론에 따르면 예술 세계(Art world)는 특정인들로 구성된 실체적 범주로 파악된다.

예술가는 예술이라는 실체적 활동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예술과 예술가는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이 담론은 첫 번째 담론과 대립한다. 첫 번째 담론은 이 형태의 담론을 제물로 삼아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이 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첫 번째 담론이야말로 속물적인 담론이라 폄하한다.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에서 이렇게 변주된 담론은 사회적 설득력을 상실한다. 이미 예술품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사회적 관행은 자리 잡았고, 이른바 팔리는 예술과 팔리지 않는 예술사이의 경계 또한 확실하다. 이 담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팔리지 않을수록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예술가일수록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받는다.

세 번째 유형의 예술 정당화 담론은 예술과 예술가의 형이상학적 지위를 고집하지 않고, 예술과 예술가의 지위를 끊임없이 변동이 펼쳐지는 지형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과 구별된다. 예술은 경제적 활동과 구별되는 활동이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이다. 삶의 필연성에 구속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삶의 필연성에 구속되지 않는 삶이 있다. 경제활동은 삶의 필연성에 구속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반면 예술은 삶의 필연성에 구속되지 않는 삶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 필수적이지도 않고 또 단순히 실용적이지도 않은 사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공통점 때문에 자유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잠재태로 갖고 있다. 반면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구속되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노동은 예술활동과 달리 자유로운 활동일 수 없다.

두 번째 담론이 예술계를 사회속의 작은 또 다른 사회로 간주 하며, 작은 사회인 예술계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정당화를 꾀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담론은 특정 유형의 활동으로 파악된 예술 개념이 예술계를 뛰어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됨을 지향한다. 예술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예술은 노동과 구별되는 활동의 특성을 얼마나 현실화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담론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해 총괄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이 담론은 항상 예술의 잠재태를 현실화시키는 긍정적인 예술과 그렇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술을 구분한다. 이 담론에 따르면 직업이 예술가라고 해서 반드시 예술적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예술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대로 예술작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담론에 따르면 예술가와 예술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술/예술가의 범주는 언제든 확장될 수 있다. 이 담론은 '삶의 미학화' 를 중심으로 예술을 정당화한다. 즉 경제적 유용성의 논리가 삶의 노예화/삶의 도구화를 지향하는 방향을 지칭한다면, 예술/예술가는 삶의 미학화를 지칭하는 방향을 지지할 때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이 담론은 예술과 예술가의 '쓸모' 를 묻기 보다는 존재의 미학화, 삶의 미학화, 사회의 미학화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존재의 미학화, 삶의 미학화, 사회의 미학화를 피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잠재성에 주목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보조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미학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 4.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사회적 의미 : 문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우리가 문화정책의 변화된 기조 속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위치시키면,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단순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내 문화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문화영역은 사회를 정치-경제-사회문화로 나누는 3분법에 따른 일부가 아니라,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매개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이다. 시장 속에서 개인은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적 존재라면, 국가와 정치의 영역에서 개인은 공적 존재로 자리 잡는다. 문화 영역은 완전한 사적 개인과 완전한 공적 개인을 매개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보건정책, 청소년정책, 문화정책, 예술정책 등의 영역에 대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분절화 되어 있는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매개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이어야 한다. 문화정책은 시민의 '생활세계' 를 영역으로 삼는다.



그림 2 정치 - 사회문화 - 경제의 관계

사적 영역의 소유권을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사적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획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매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자유주의자는 경제정책 - 정치정책 - 사회문화정책의 관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매개관계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관계로 바꾸어 놓고 경제를 선택한다. 자유주의자에게 사회문화정책은 경제정책, 정치정책에 종속되는 하위 정책영역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배타적인 사적 권리가 공적 권리로 전환되어 사적인 것이 공적 논의의 중요 대상이 되는 매개영역이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주체적 재생산에 관하여 논의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은 시장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매개영역인 시민사회이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국가(정치)의 과대화에 시달려 왔고, 국가(정치)의 과대화는 민주화를 통해 정정되어야 할 독재 정치의 유산이었다. 하지만 국가(정치)의 과대화는 시장(경제)의 과대화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과대화된 국가(정치)가 개인을 추상적인 공적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는 국가주의적 유산과 관련이 있다면, 과대화된 시장(경제)은 또 다른 전체주의를 낳을 뿐이다. 단지 차이는 정치적 전체주의인가, 경제적 전체주의인가일 뿐이다.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공적 정책입안자와 민간기업 사이의 스피드 문제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마케팅을 위해 사회문화적 변동을 이끌어내는 트렌드에 주목하고, 또한 동시에 마케팅을 위해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동을 유발한다. 민간 기업에게 사회문화 변동을 유발하는 트렌드 읽기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민간 기업은 욕망의 트렌드를 매우 빨리 읽어낸다. 하지만 늘 정책입안자는 민간기업보다 사회문화변동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속도가 느리다. 기업은 개인들의 욕망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절대적 요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욕망의 흐름 파악은 바로 기업들의 마케팅 능력과 직결되며,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업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사회문화변동을 유발하는 트렌드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트렌드 속에는 개인들의 미세한 욕망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사회문화정책의 효용을 거대 가치기 아니라 자신들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욕망은 때로 충돌한다. 특정 계층의 욕망추구는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호 충돌하는 욕망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보다 더욱 중요하다. 공공정책과 기업 마케팅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다. 기업은 욕망의 흐름만 파악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국가의 공공정책은 욕망의 흐름파악만으로 부족하다. 공공정책은 욕망을 조절하고 충돌하는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경제적 사회안전망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에 불과하다.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의미의 사회안전망으로는 현재 개인들이 생애주기에 처한 위험에 대한 공적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을 충족시키는 목표를 지니고 있을 뿐인데, 주체의 재생산 과정에서 개인이 노출된 생애주기 단계의 각각의 위험은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경제양극화로 인해 형성된 생애주기별 위험의 양극화를 방지할 경우, 또는 소극적인 방식의 생존적 복지만 펼칠 경우 양극화 구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뿐, 시장과 정치의 매개영역인 '생활세계'에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시장의 경제주의가 낳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경제주의적 해법에 불과하다. 사회 안전망을 통해 보장되어야 할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실존 보장이다.

시장의 헤게모니 장악은 경제주의의 확산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시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공적 영역에 관한 개인들의 관심을 차단시킨다.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의 확산으로 인해 공적 영역이 축소되면서 출현한 사회란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화폐의 추상적 관계망으로 인해 인간 사이의 추상적 결합이 이뤄지는 곳이다. 시장의 과대 확대는 개인들을 타인의 부채를 전제로 한 사적 개인으로 만들고 공적 영역을 말소시킨다. 공적 영역이 쇠퇴하면 인간과 인간이 시장의 관계로 축소되고 환원된다.



사회 안전망이 개인의 경제적 실존이 아니라 인간적 실존을 보장하는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 안전망의 경제주의적 태도를 견어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문화적 사회 안전망이라 부르고자 한다. 문화적 사회안전망은 국가는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만을 보장하고 주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사적 시장관계에 의존하는 시장주의를 청산하고, 주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공적 영역에서 보장하는 안전망이다.

개인들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치며 육아, 출산, 의료, 주택, 교육, 문화 등 주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로 한다. 현재 개인들은 주체형성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을 사적인 시장에서 시장주의적 방법에 의해 지불한다. 시장에서 주체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자본을 지닌 개인은 이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나, 경제자본을 지니지 못한 개인은 이 재생산 메커니즘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생산 메커니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구는 많아봐야 불과 최상위 20%뿐이라는 사실이다.

문화적 사회안전망이란 사회 구성원이 소득에 관계없이 주체의 자기계발의 가능성을 부여받은 사회안전망이다. 21세기가 '창조성'에 의해 지배되는 시기라 할 때 경제적 생존에만 관련된 사회 안전망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개개인들에게 '창조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기회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21세기는 더욱더 20-80사회의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이다. 문화향수가 인간의 창조성 계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의존적 구조에서 문화향수는 폐쇄적인 회로에서 머물러 있다.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사람, 문화를 통해 자신이 창조성을 계발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고학력이나 중산층이자 활동이 가능 청년, 중년의 생애주기의 사람들이다. 문화의 창조성은 시민사회 전체 영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이 특정 층으로 구성된 폐쇄회로 속에서 순환한다. 문화적 사회안전망은 현재의 문화향수의 폐쇄 회로를 차단하고, 문화의 창조성이 전 시민사회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세혈관을 만들어내야 한다.

창조성의 폐쇄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생활세계 속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창조성을 계발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기간망'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권 문화기간망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중대규모로 전문화된 문화기반시설과 달리 '생활권 문화기간망'은 복지, 문화예술, 체육, 여가 등 개인의 재생산에 필요한 제반 수요를 시장적 방법이 아닌 공적 방법으로 생활세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생활권 문화기간망'은 개인들에게는 재생산 비용을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재생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일



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시민사회영역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낼 수 있다.

현재의 시장 의존적 재생산구조는 개인이 생애주기별로 등장하는 위험을 뛰어넘은 허들경기에 불과하다. 그 허들경기에서 허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고령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문화적 사회안전망은 세대간 순환구조 창출을 겨냥해야 한다. 고령인구에게는 사회 재귀프로그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종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 개인들에게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재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 세대간 연대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바로 경기도 내에 문화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결합해야 그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2006년 정기 공모지원사업 개요

# 02

1. 공모지원사업의 목표 및 개요
2. 2006년 공모지원사업의 변화
3. 지원사업의 지원현황 및 분포



## 2006년 정기 공모지원사업 개요

### 1. 공모지원사업의 목표 및 개요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설립된 이래 경기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의 목표는 “문화예술의 주체인 예술가 매개자 향유자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의 2006년 공모지원사업은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진흥 (2)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3) 문화예술인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4)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정보화활동 지원 등을 겨냥하여 실시되었다.

- (1) 문화예술창작활동 진흥은 전문예술인을 위한 지원영역으로 “기초예술 및 다원적 복합·실험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이 수준 있는 문화예술 창작·발표활동 및 전통문화의 보급·전승활동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 함을 목적으로 삼으며, 이 목표에 따라 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2. 공공실험예술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지원을 시행하였다.
- (2)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는 경기도민과 “아마추어 예술인, 단체를 위한 지원영역으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를 겨냥한 것으로 4.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5.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6.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증진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 (3) 문화예술인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는 “타 문화권과의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하는 것으로 이 목적을 위해 7.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이 실시되었다.



(4)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정보화활동 지원은 “경기도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며, 오늘날의 문화예술이 후세에도 의미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연구·정보화하는 각종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8.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활동 지원과 9. 문화예술 정보화활동 지원을 실시하였다.

지원분야		지원신청자격	지원금규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진흥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각 사업유형별 상·하한선 차이 존재함
	공공·실험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각 사업유형별 상·하한선 차이 존재함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예술인, 매개자	하한선(300만원), 상한선(1,000만원)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육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하한선(100만원), 상한선(1,000만원)
	아미추어 문화예술활동	매개자, 향유자	하한선(100만원), 상한선(1,000만원)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하한선(100만원), 상한선(2,000만원)
문화예술인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예술인, 매개자	하한선(500만원), 상한선(2,000만원)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 정보화활동 지원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 활동	예술인, 매개자	각 사업유형별 상·하한선 차이 존재함
	문화예술 정보화활동	예술인, 매개자	하한선(300만원), 상한선(2,000만원)
공통기준			
심의기준	사업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사업추진 능력 등		

표 1 2006년 정기공모사업 개요



## 2. 2006년 공모지원사업의 변화

2006년도 공모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던 공모지원사업과는 달리 몇 가지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다. 첫 번째로 신청자격은 개선되어 단체자격의 경우 ① 경기도 단체로 명백히 입증될 경우, 단체 대표자의 거주지 도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② 타 지역에 사무소, 문예공간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내에 '경기도 문예진흥을 위한 분사무소, 연습실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경기도 단체로 인정하며 ③ 소극장 등 지역문예공간활성화사업 지원대상단체의 신청제한을 해제하였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제한이 대폭 해제되었는데,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에서 지원결정된 사업에 대한 신청제한을 해제하였고 ② 목표중심 지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휴식년제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지원분야 기준에도 몇 가지 변경사항이 도입되었다. 2005년도의 '분야7. 지역간 문화예술격차해소활동' 지원분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실시하는 '찾아다니는 예술활동', '모세혈관운동'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재단지원 분야에서 폐지하고, 배정예산(1억5천만원)은 2006년도 '분야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분야에 통합·운영하였고, 2005년도 '분야11. 전통문화예술 보급과 창조적 계승활동' 지원분야는 통일성 있는 지원정책을 위하여 2006년도 '분야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분야 중 전통예술영역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도 지원분야	2006년도 지원분야	신청주체
① 기초예술 창작·발표활동	①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② 공공·실험예술활동	② 공공·실험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③ 문화예술인창조력 제고활동	③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예술인, 매개자
④ 문화예술 교육활동	④ 문화예술 교육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⑤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⑤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매개자, 향유자
⑥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증진활동	⑥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증진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⑦ 지역간 문화예술격차해소활동	분야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에 포함	
	⑦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신설)	예술인, 매개자
⑧ 지역문화예술 조사연구 및 평론활동	⑧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활동	예술인, 매개자
⑨ 지역문화예술정보화활동	⑨ 문화예술 정보화활동	예술인, 매개자
⑩ 전통문화예술보급과 창조적 계승활동	분야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에 포함	

표 2 지원분야 변경사항



### 3. 지원사업의 현황 및 분포

아래의 표는 각 분야별로 지원현황을 구분한 것으로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달라진 변동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2006년 신청건수가 2005년 1,490건에서 1,35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6건 줄었으며, 지원결정건수는 469건에서 447건으로 22건 줄어들었다.

지원분야	2005년					2006년				
	신청건수	지원건수	신청건수 대비 지원율	지원금	건당평균 지원액	신청건수	지원건수	신청건수 대비 지원률	지원금	건당평균 지원액
분야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828	253	30.56	1,398,600	5,528	684	221	32.31	1,349,000	6,104
분야2. 공공·실업 예술활동	54	13	24.07	100,000	7,692	54	15	27.78	114,500	7,633
분야3.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19	12	63.16	80,000	6,667	16	11	68.75	64,000	5,818
분야4. 문화예술 교육활동	129	29	22.48	100,000	3,448	130	35	26.92	124,000	3,543
분야5. 아마추어 문화 예술활동	317	118	37.22	300,000	2,542	258	112	43.41	360,000	3,214
분야6. 소수지문화예술향유기회증진활동	92	17	18.48	70,000	4,118	84	22	26.19	96,500	4,386
분야7.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84	14	16.67	120,000	8,571
분야8. 문화예술조사, 연구, 평론활동	36	20	55.56	100,000	5,000	31	13	41.94	78,000	6,000
분야9. 문화예술 정보화활동	15	7	46.67	50,000	7,143	13	4	30.77	14,000	3,500
계(평균)	1,490	469	31.48	2,198,600	4,688	1,354	447	33.01	2,320,000	5,190

표 3 2005, 2006년 모니터링 대상사업의 분야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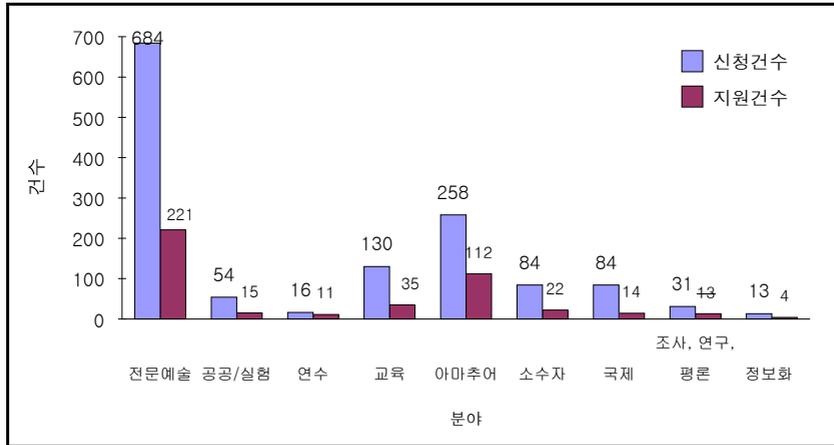


그림 3 2006년 대상사업 신청건수 및 지원건수 분포

분야1(전문예술인 예술활동)의 경우 건당평균지원액이 57만원 상승하고, 전체적으로는 건당 약 50만원이 상승하였다. 또한 분야3(문화예술연수활동), 분야9(문화예술정보화활동)의 경우 건당평균 지원액이 많이 떨어졌다.

2005년도와 비교하여 신청건수 대비 지원율은 평균 31.48%에서 33.01%로 다소 상승되었다. 각각의 세부 영역에서도 모든 비율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신청건수는 684건으로 분야1(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에서 가장 높았으며, 신청건수 대비 지원률은 분야3(문화예술인 연수활동) 분야에서 68.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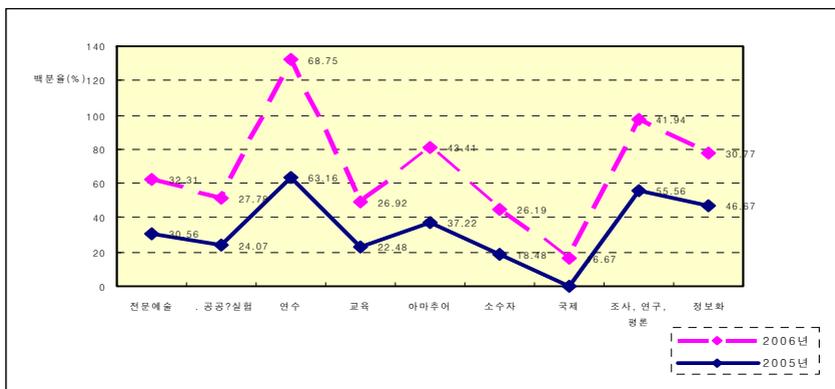


그림 4 2005, 2006년 신청건수 대비 지원율



지원결정율의 추이를 1997년부터 살펴보면, 1997년의 지원결정율은 66.9%였으나, 2006년의 경우 33.0%로 1997년과 비교해보면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각 년도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1997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지원결정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지원금액은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은 건당 평균지원금액이 164만 5천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의 경우 519만으로 증가하여, 선정건수는 줄었지만 지원액은 점차 규모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년도	접수수	지원수	지원결정율 (%)	총지원금 (천원)	건당 평균지원금액 (천원)
2006	1354	447	33.0	2,320,000	5,190
2005	1,490	469	31.4	2,198,600	4,687
2004	1,050	509	43.4	1,500,000	2,946
2003	912	556	55.0	1,500,000	2,697
2002	957	643	64.0	1,403,000	2,181
2001	1,056	495	48.2	1,200,000	2,424
2000	952	568	59.6	1,500,000	2,640
1999	1,095	465	42.4	1,500,000	3,225
1998	834	584	69.4	1,789,300	3,063
1997	484	324	66.9	533,000	1,645
합계	10,184	5,060		15,443,900	

표 4 연도별 정가공모지원접수 및 지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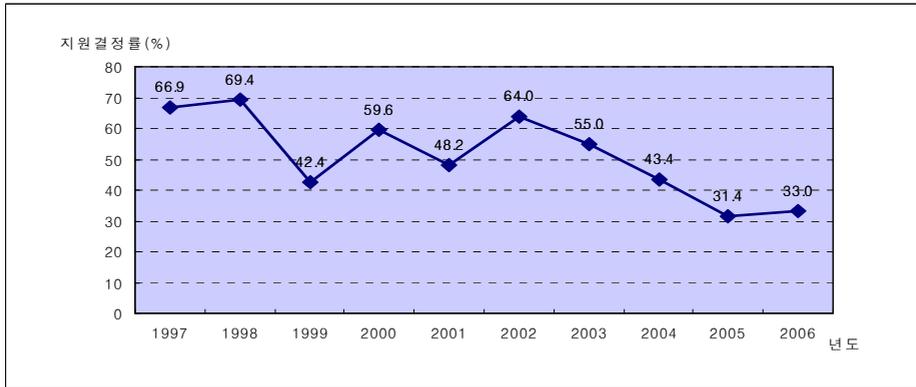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지원결정률

2006년에 지원된 총 447건의 선정된 사업을 소외지역과 집중지원 지역의 편차를 줄이고 그룹별 선종 수를 균등하게 조절하기 위해 도내 31개시·군을 8개 지역으로 배정한 2004년도 모니터링 권역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면 중요한 결과가 도출된다. 가장 지원대상 선정율이 낮은 지역은 I지역(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으로 전체 지원대상 중 5.81%이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된 권역은 VIII지역(수원, 화성, 평택, 오산)으로 전체 지원 대상 중 19.68%를 차지하고 있다.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등의 I지역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양주 등이 속해 있는 II권역이 전체적으로 낮은 지원율을 보여주고 있다.



시군명	2006지원결정현황		
	시군하한선	지원결정건수	지원금
가평군	10,000	6	41,000
고양시	98,300	35	171,200
과천시	27,100	15	11,500
광명시	31,100	9	54,700
광주시	22,700	8	55,500
구리시	17,700	3	20,500
군포시	32,500	10	57,500
김포시	24,900	7	26,000
남양주시	35,500	10	69,500
동두천시	10,000	4	12,000
부천시	95,900	38	147,500
성남시	96,700	43	202,600
수원시	129,200	56	283,300
시흥시	34,900	8	67,500
안산시	63,800	19	100,500
안성시	25,100	17	87,500
안양시	61,700	23	139,000
양주시	13,200	5	13,500
양평군	19,900	7	33,000
여주군	15,300	6	29,500
연천군	10,000	4	11,100
오산시	11,500	5	12,500
용인시	62,300	25	136,500
의왕시	14,100	9	73,500
의정부시	47,600	15	102,500
이천시	19,900	12	60,300
파주시	25,800	6	31,000
평택시	39,300	18	80,000
포천시	24,500	8	36,000
하남시	17,100	7	19,000
화성시	29,700	9	30,300
기타	0	0	0
계	1,167,300	447	2,320,000

표 5 2006년 시군별 지원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지역	지원건수	지원대상 선정율(%)
I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26	5.81
II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양주	36	8.05
III	고양, 파주, 김포	48	10.7
IV	여주, 이천, 용인, 안성	60	13.42
V	성남, 하남, 광주	58	12.97
VI	안산, 시흥, 의왕, 군포, 과천	61	13.64
VII	안양, 광명, 부천	70	15.56
VIII	수원, 화성, 평택, 오산	88	19.68
	기타	0	0.0
	계/평균	447	

**표 6 권역별 지원대상사업 선정수**

시군별로 지원선정건수를 비교해보면 하위 10개 시군과 상위 10개 시군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이 드러난다. 저빈도 순위를 살펴보면 구리시는 3건, 동두천 시는 4건, 연천군은 4건으로 지원 선정 고빈도 순위 1위인 수원시(56건), 2위 성남시(43건), 3위 부천시(38건)와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시군별 지원 저빈도 순위			시군별 지원 고빈도 순위		
순위	시군명	지원건수	순위	시군명	지원건수
1	구리시	3	1	수원시	56
2	동두천시	4	2	성남시	43
3	연천군	4	3	부천시	38
4	양주시	5	4	고양시	35
5	오산시	5	5	용인시	25
6	가평군	6	6	안양시	23
7	여주군	6	7	안산시	19
8	파주시	6	8	평택시	18
9	김포시	7	9	안성시	17
10	양평군	7	10	과천시	15

표 7 2006년 시군별 지원 저빈도 / 고빈도 순위



시군명	지원건수	모니터링대상사업선정건수	모니터링 대상선정율(%)
가평군	6	3	50.0
고양시	35	9	25.7
과천시	15	9	60.0
광명시	9	6	66.7
광주시	8	4	50.0
구리시	3	0	0.0
군포시	10	6	60.0
김포시	7	5	71.4
남양주시	10	5	50.0
동두천시	4	2	50.0
부천시	38	15	39.5
성남시	43	23	53.5
수원시	56	30	53.6
시흥시	8	6	75.0
안산시	19	10	52.6
안성시	17	10	58.8
안양시	23	13	56.5
양주시	5	0	0.0
양평군	7	5	71.4
여주군	6	1	16.7
연천군	4	0	0.0
오산시	5	0	0.0
용인시	25	11	44.0
의왕시	9	6	66.7
의정부시	15	9	60.0
이천시	12	8	66.7
파주시	6	1	16.7
평택시	18	5	27.8
포천시	8	3	37.5
하남시	7	0	0.0
화성시	9	2	22.2
기타	0	0	0.0
계/평균	447	207	46.3

표 8 시군구별 지원건수 및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수



현재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확보한 뒤 지원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전체사업비와 재단의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전체사업비에서 재단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1%정도이다. (전체사업비는 지원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뒤 재단에 제출하는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9곳은 통계에서 제외시켰음) 사업비 관련통계는 207건의 모니터링 대상 중 정산서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188건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58.5%에 해당하는 110건의 사업이 실행단계에서 총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72건의 사업, 전체 사업의 약 38.3%가 101~120%의 범위에서 신청서 상의 총사업비를 약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	표본수	신청서		정산서		총사업비 감소율	지원금 삭감율
		총사업비	신청지원금	총사업비	지원금		
전문예술-시각/공연	77	39,156	18,088	32,247	9,429	17.65	47.87
전문예술-전통	20	47,059	22,641	31,783	14,099	32.46	37.73
아미추어	48	44,731	21,760	31,391	11,897	29.82	45.32
연수/교육	30	49,581	24,320	36,195	14,219	27.00	41.53
소수자	11	42,940	22,005	30,373	11,950	29.27	45.70
국제	2	46,261	23,163	33,284	13,084	28.05	43.51
total/ave.	188	44,955	21,996	32,545	12,446	27.60	43.42

표 9 지원영역별 지원금 삭감율과 총사업비 감소율

위의 표는 장르별로 총사업비 감소율과 지원금 삭감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원사업의 지원금 삭감율이 43%라는 것은 지원사업신청서를 통해 신청한 지원금의 43%가 삭감되어 지원된 것이다. 전문예술 전통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5분야에서 지원금 삭감율이 40%를 넘고 있다. 그러나 2004년도의 평균 지원금 삭감률이 53.3%(2004년 모니터링보고서 참고)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지원율이 좀 더 개선되고 있음을 평가할 수 있다.



## 2006년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개요

# 03

1. 모니터링의 목적
2. 모니터링의 종류
3. 모니터 구성현황
4. 모니터링 대상사업
5. 모니터링 평가지표
6. 모니터링 절차



## 2006년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개요

### 1. 모니터링의 목적

2006년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의 행정평가를 통한 성과관찰, 제도 개선,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보완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개 관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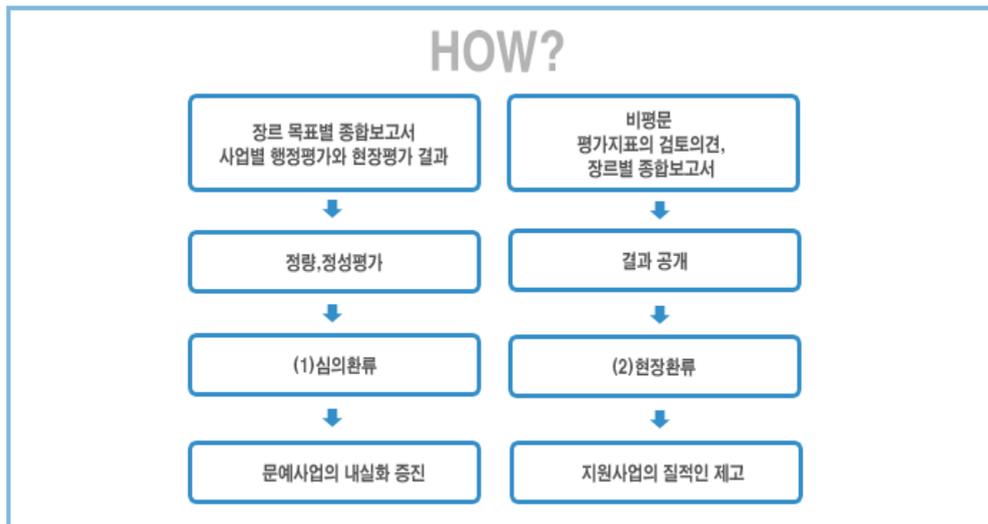


그림 6 모니터링의 목적

#### 심의환류를 통한 문예사업의 내실화 증진

심의환류는 공모지원사업 심의에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어 보다 내실있는 사업에 지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주로 평가지표에 계량화된 정량평가 결과를 적용하는데 평



가기준이 심의기준과 연계되어 재단의 지원근거와 평가근거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밖에 지원사업과 모니터의 특성에 따라 5종류의 평가지표가 활용되었다.

### 현장환류를 통한 지원사업의 질적인 제고

재단의 모니터링은 주로 현장환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재단과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집행하거나 받는 단순 관계에서 벗어나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별 사업의 평가결과(비평문이나 검토의견)를 공개하고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두고 소통하는 주체로서 비평가와 시민, 지원사업자, 재단이 모두 참여가 가능했다. 소통을 위한 온라인 활용 매체는 모니터링 홈페이지이며 오프라인 활용 매체는 모니터링 보고서와 평가 회의가 있었다. 평가지표 내 정성평가 부분인 검토의견과 총평은 모니터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지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모니터링의 종류

### 2.1 시민 모니터링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부양하여 건강한 문화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원사업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 문화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 부분과 개선점을 사업자와 재단에 제안하는 과정이다.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시민 모니터링은 일반 시민들이 단순히 제 3자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문화예술을 바라볼 수 있는 감식안을 넓혀가는 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참관토록 계획되었다.



## 2.2 심층모니터링

장르별 문예비평가, 기획자, 심의위원, 연구자를 중심으로 그룹이 구성되었다. 심층모니터링그룹은 시민모니터링그룹과 같은 과정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의 질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모니터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평가의 환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평가지표 외에 비평문을 생산한다는 점이 다르다. 심층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많은 비평가들이 도내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그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3 언론연계 모니터링

특정 분야에 한해서 외부 전문가와 지역언론사 기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이다. 지역언론사가 모니터링에 참여한 결과는 신문기사를 통해 도민들과 그 결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질적인 평가를 담당한 비평가는 비평문을 통해, 담당기자는 취재기를 통해 도내 문화예술 환경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내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여러 채널을 통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모니터 구성현황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심층, 시민, 교육모니터링으로 나누고 모니터링의 목적에 따라 구성방식과 역할을 달리하였다.

구분	구성	역할	평가보고
심층모니터링	비평가, 연구자, 기획자	지원사업의 예술성을 위주로 한 평가와 비평을 통해 기초예술환경의 내실화 도모	비평문 평가지표 장르별 종합 보고서
시민모니터링	자발적 시민 참여 (공개모집)	지역 문화예술환경의 다양성 및 저변확대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참관기 평가지표 지역별 종합 보고서
교육모니터링	시민, 비평가, 문화예술교육활동가	사업이 도내 문화예술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	사업경과보고서 평가지표 종합보고서

표 10 2006년 재단 문화예술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내역

심층모니터링은 비평가, 연구자, 기획자로 구성되며, 지원사업의 예술성을 위주로 한 평가와 비평을 통해 기초예술환경의 내실화 도모에 역할을 하며, 공모지원 사업 중 전문예술인에 의해 실행되는 지원사업에 참관하고, 비평문, 평가지표, 장르별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평가를 보고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은 수동적인 문화예술 향유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모니터링은 2005년 활동 모니터링그룹 중 문예진흥기금 공모지원사업에 포함된 그룹을 제외하고 정예화하며 교육모니터링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민모니터링그룹을 양성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환경의 다양성 및 저변확대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가졌다. 시민모니터링 그룹은 아마추어, 전문예술인에 의해 실행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참관기, 평가지표, 지역별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보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모니터링은 시민, 비평가, 문화예술교육활동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이 도내 문화예술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교육모니터링 그룹은 재단 모니터링 그룹 내에서 모집 후 1개 그룹으로 구성하였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비평가 및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였으며, 시민모니터링 그룹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이들은 사업결과보고서, 평가지표, 종합보고서를 통하여 평가보고를 하였다.

순번	코디네이터	구성원	그룹명	지역
1	오 일 순	4	거위벌레	남양주, 양평, 의정부, 포천, 동두천
2	오 춘 림	5	꿀 벌	고양, 파주, 김포
3	임 옥 경	3	꽃 등 예	부천, 광명, 안양, 시흥
4	양 현 주	3	무당벌레	성남, 광주, 과천, 의왕,
5	임 현 아	3	애호날개	수원, 안산, 화성
6	문 복 남	5	반딧불이	안성, 평택 등
7	박 정 애	4	무궁화	용인, 여주, 이천 등
8	오 미 경	4	솜 다 리	안양, 군포 등

표 11 2006년 시민모니터링 구성 현황



번호	이름	장르1	현직 (2006년 현재)
1	정경미	미술	북촌미술관 큐레이터
2	김소원	미술	전 갤러리 서미 큐레이터
3	김성호	미술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 중앙대 조소과 강사
4	김최은영	미술	세종문화회관 정기간행물 '문화공간' 객원기자
5	민병직	미술	계원 조형 예술대학, 서울 산업대 강사
6	박응주	미술	미술비평
7	이병희	미술	갤러리 정미소 큐레이터
8	이선영	미술	계간 [미술평단] 편집장
9	임산	미술	고려대학교 촉탁강사
10	임현아	미술	전 갤러리 서미 큐레이터
11	홍경한	미술	월간아트플러스편집장
12	강수미	미술	동덕여대 학부 및 대학원, 경기대 학부 및 대학원 강사
13	성윤진	미술	문화일보갤러리 큐레이터
14	권순대	연극	경희대 강사
15	김옥란	연극	한양대 강사
16	김재엽	연극	극작가 / 연출가 / 비평가
17	백로라	연극	평론가, 송실대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18	안경모	연극	프리랜서 극작/연출가
19	엄국천	연극	평론가
20	우미옥	연극	문화예술의전당 공연예술관련 인터넷 사이트 공연담당기자
21	정형탁	연극	월간 아트인컬처 객원편집위원
22	최창근	연극	평론가
23	김수미	연극(뮤지컬)	성남아트센터
24	권연정	사진	타임스페이스 객원기자

표 12-1 2006년 심층모니터링 그룹 현황



번호	이름	장르1	현직 (2006년 현재)
25	김석원	사진	공주영상정보대학 방송모델과 학과장
26	현혜연	사진	중대 사진아카데미 주임교수
27	김태현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8	전민정	공공미술	미술인회의 공공미술분과 연구원
29	서정민갑	다원예술	한국민족음악인협회
30	김남수	무용	무용평론가, 무용월간지 <몸>편집진
31	허명진	무용	무용월간지<몸>스태프평론가
32	장인종	음악	예종 음악원 전문사
33	김병오	음악	전주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전임강사(음향)
34	류현정	음악	콰이어&오르간코리아 편집장
35	이용권	전통음악	예종 전통예술원 전문사
36	이준희	전통음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음악학전공
37	전지영	국악	평론가, 서울대 강사
38	박문희	전통음악	국립국악원 기획홍보팀
39	조경아	전통무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 박사과정
40	이병민	정보화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41	차선혜	지역(향토)문화	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42	허홍범	향토사	과천문화원 학예연구사
43	조성면	문학	인하대, 경원대 강사. 인천작가회의 기관지 '작가들' 편집위원
44	조성진	서예	플로엠훈 기획위원
45	김준기	공공미술	공공미술지원센터
46	이광준	공공미술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팀장
47	박지연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시나리오작가, 만화평론가
48	황덕신	축제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문화기획팀장

표 12-2 2006년 심층모니터링 그룹 현황



## 4. 모니터링 대상사업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공모지원사업을 신청받을 당시 지원사업자가 문예진흥기금지원신청서에 있는 모니터링 요청 항목에 직접 표시하여 신청하도록 했다. 모니터링을 신청한 사업은 지원이 결정된 사업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모니터링이 완료된 사업은 207건이다.

모니터링종류	지원목표 - 장르	대상사업(건)	
심층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 문학	5	148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시각	48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공연	38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전통	32	
	공공,실험예술활동	10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	1	
	문화예술조사연구평론활동	11	
	문화예술정보화활동	3	
교육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11	40
	문화예술교육활동	29	
시민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62	10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20	
	소수자 문화예술향수기회증진활동	19	
계	대상사업 : 총 447건중 269건(60%) 모니터링 완료사업 : 207건 (중복사업포함 214건)		

표 13 모니터링 대상사업



## 5. 모니터링 평가지표

2006년 평가지표는 공모지원사업의 영역별로 7가지 기준으로 나뉘며 심의기준과 지원사업의 특징과 전반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대치가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평가지표 개발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모니터의 의견과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한다.

평가지표는 크게 사업개요, 현장스케치, 현장참관으로 나뉜다. 사업개요는 현장 참관 후 실제 사업이 실행된 시기와 장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현장스케치는 현장참관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평가보고서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에서 주로 정산서를 검토할 때 참고하게 된다. 현장참관은 현장에서의 참여관찰과 모니터의 검토결과를 기입한다.

평가지표 중 '추천계획 대비 실현정도'는 지원사업자가 의도했던 사업 계획과 현장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행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예술성' 혹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사업의 무형요소(주제, 소재, 원형의 유무)의 가치 평가 → 무형요소를 구현하기 위한 기법이나 프로그램 진행 등의 유형요소 평가 → 지원사업자가 의도한 무형요소와 유형요소는 제대로 구현되어 작품이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완성도와 연결되는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구성했다.

### 5-1. 개선방향

- 지원항목별 사업 진행경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정량평가 도입
- 항목별 평가근거를 서술하기 위해 검토의견과 종합평가의견 활용
- 각 항목별 지표는 세분하고 구체적인 표현 사용
- 서면 평가(30점)와 현장평가(70점)로 분리



서면평가	재단 행정담당 전문위원의 평가. 모든 영역에 공통 적용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자부담율(신청서와 정산서 비교), 지원요청 항목(교부신청서와 정산서), 정산서 제출시기, 총괄 평가(정산서의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 검토의견	
현장평가		
사업개요	사업자, 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총사업비, 지원비	
현장스케치	행사안내표시(실내, 실외), 안내데스크, 현장인력, 관객보표, 후원/협찬, 편의시설	
현장참관		
추진계획대비실현정도	모든 영역 공통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목표의 실현 정도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내용 및 규모의 실현 정도 교부신청서에 요청한 지원금 신청내역의 활용 정도
예술성 or 프로그램 완성도	전문예술-시각/공연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외의 (주제, 소재 등) 표현기법의 적절성(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현 방법은 적절한가) 결과물의 완성도(작품주제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구현되는가)
	전문예술-전통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보존·계승 등의 가치 중심 평가 예술적 표현기법과 구성의 적절성(내용의 구현방법은 적절한가) 결과물의 완성도(전통의 가치와 표현기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전달하기 위한 사업자의 전문성 고려)
	이미추어	해당사항 없음
	연수/교육	사업수행 의지 및 노력(사전준비 상황과 사업자의 진정성 고려)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교육대상과 선택의 적정성 고려) 프로그램의 완성도(참여인력의 전문성 고려)
	소수자	사업자의 사업수행 의지 및 노력(사업주체와 사업대상인 소수자의 관계 고려) 사업대상과 프로그램의 적합성(사업대상의 환경, 필요성 등을 고려) 프로그램의 완성도(사업자의 전문성과 소수자의 만족도 고려)
기대효과	전문예술-시각/공연	사업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 해당 장르내의 파급효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홍보 성과와 집객 고려)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전문예술-전통	대상사업이 지원사업자에게 미치는 순기능 (역량강화, 원형보존, 발굴 등) 전통문화예술 보급에의 기여도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홍보 성과와 집객 고려)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이미추어	대상사업이 지원사업자에게 미치는 순기능 (역량강화, 삶의 질 개선 등) 도민(이미추어 지원사업자와 사업대상포함)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지역문화예술 환경에 미치는 효과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연수/교육	연수 및 교육 참가자에게 미치는 순기능(역량강화, 창조력 증진 등) 해당 장르 및 지역문화예술 환경에 미치는 효과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소수자	사업대상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지역문화예술 환경에 미치는 효과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기금지원의 필요성	모든 영역 공통	위의 지표 및 기타 비계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평가
지원사업자 의견	모든 영역 공통	

표 14 2006년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항목 지원목표	서면평가	추진계획 대비 실현 정도	예술성 or 프로그램의 완성도	기대효과	기금지원의 필요성	합계
전문예술 -시각/공연	30	15	30	15	10	100
전문예술 -전통	30	15	30	15	10	100
아마추어	30	24	.	36	10	100
연수/교육	30	15	20	25	10	100
소수자	30	15	20	25	10	100

표 15 평가영역 및 배점요약

## 5-2. 지원영역별 평가지표

### (1) 전 영역 공통 요소

#### 사업개요

작성자			
현장참관일			
사업자		장 소	
사업명		총사업비(원)	
사업기간		지원비(원)	



## 현장스케치

항목	세부항목		현장체크
현장스케치 (배점없음)	행사 안내표시	실외	전시실 외벽 포스터
		실내	리플렛
	안내데스크		리플렛, 방명록, 안내인 1인
	현장인력		작가, 도슨트
	관객분포		시각 : 현장참관 30분간 성인 3명 관람 공연 : 공연장객석수 620석중 점유율 50% 교육 : 교육생 30명중 평균 20명 수강
	후원/협찬		현장에서 배포되는 리플렛이나 현수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후원과 협찬처 기재
	편의시설		주차시설, 화장실
검토의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나 전달할 내용이 있을 경우. 혹은 위의 세부항목에 표시하기 어려우나 기록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간단히 기록		

현장 참여관찰시에는 모니터링 수첩에 있는 평가지표 양식중 현장스케치 부분을 잘 활용하여 바로 기입하고 현장스케치에 메모된 것을 참고하여 평가지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 (2) 지원영역별 현장 평가지표



### A.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각, 공연분야

항목	지표	점수		검토의견
추진계획 대비 실행정도 (15)	A-1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목표의 실현 정도	탁월	5.0	지원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과 비교합니다. 지원사업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축소된 건 아닌지 검토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지원금신청내역만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인쇄비에 재단 지원금을 활용하겠다고 기재했다면, 예산내역에 기재된 구체적인 홍보물(도록, 팸플릿, 현수막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지표의 검토의견은 사전조사자료, 기록,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항목별 편단을 설득력있게 기술합니다.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A-2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내용 및 규모의 실현 정도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A-3 교부신청서에 요청한 지원금 산청내역의 활용 정도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예술성 (30)	A-4 주제의식의 명료성, 소재의 적합성 - 작품의 내용적 측면	탁월	8.0	작품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그리고 완성도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표현기법은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측면을 말합니다.
		우수	6.4	
		보통	4.8	
		미흡	3.2	
		매우미흡	1.6	
	A-5 표현기법과 구성의 적절성 - 작품의 형식적 측면	탁월	8.0	
		우수	6.4	
		보통	4.8	
		미흡	3.2	
		매우미흡	1.6	
	A-6 결과물의 완성도 - 기량의 숙련도	탁월	14.0	
		우수	11.2	
		보통	8.4	
		미흡	5.6	
		매우미흡	2.8	
기대효과 (15)	A-7 대상사업이 지원사업자에게 미치는 순기능	탁월	4.0	첫 번째 지표는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자가 역량을 강화하였는가? 혹은 작품의 재창작 기회를 얻어 보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할 기회를 얻었는가 등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도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효과는 사업대상의 참여도, 즉 홍보효과와 집객을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우수	3.2	
		보통	2.4	
		미흡	1.6	
		매우미흡	0.8	
	A-8 해당 장르내의 보급 효과	탁월	4.0	
		우수	3.2	
		보통	2.4	
		미흡	1.6	
		매우미흡	0.8	
	A-9 도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 효과	탁월	4.0	
		우수	3.2	
		보통	2.4	
		미흡	1.6	
		매우미흡	0.8	
A-10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탁월	3.0		
	우수	2.4		
	보통	1.8		
	미흡	1.2		
	매우미흡	0.6		
기금지원의 필요성 (10)	A-11 기타 비계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 평가	탁월	10.0	위의 지표와 비례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평가 부분입니다.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합계	점 (70점)			
지원사업자 의견				



## B.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통예술 분야

항목	지표		검토의견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 (15)	B-1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목표의 실현 정도	탁월	5.0	지원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과 비교합니다. 지원사업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축소된건 아닌지 검토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지원금신청 내역만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인쇄비에 재단 지원금을 활용하겠다고 기재했다면, 예산내역에 기재된 구체적인 홍보물(도록, 팸플릿, 현수막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지표의 검토의견은 사전조사자료, 기록,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항목별 판단을 설득력있게 기술합니다.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B-2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내용 및 규모의 실현 정도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B-3 교부신청서에 요청한 지원금 신청내역의 활용 정도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예술성 (30)	B-4 전통적 가치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정신적 가치에 대한 계승성 혹은 재해석)	탁월	8.0	전통예술의 계승이나 재창작 공히 토대가 되는 작품이 추구하는 정신세계와 기법에 대한 일정한 태도, 재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작가지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결과물의 완성도는 그의 실현을 위한 기량의 정도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우수	6.4	
		보통	4.8	
		미흡	3.2	
		매우미흡	1.6	
	B-5 전통적 기법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 (기법적 가치에 대한 계승성 혹은 재해석)	탁월	8.0	
		우수	6.4	
		보통	4.8	
		미흡	3.2	
		매우미흡	1.6	
	B-6 결과물의 완성도	탁월	14.0	
		우수	11.2	
기대효과 (15)	B-7 대상사업이 지원사업자에게 미치는 순기능	탁월	4.0	첫 번째 지표는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자가 역량을 강화하였는가? 혹은 원형 보존, 발굴, 작품의 재창작 기회 등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도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효과는 사업대상의 참여도, 즉 홍보효과와 집객을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우수	3.2	
		보통	2.4	
		미흡	1.6	
		매우미흡	0.8	
	B-8 전통문화예술 보급에의 기여도	탁월	4.0	
		우수	3.2	
		보통	2.4	
		미흡	1.6	
		매우미흡	0.8	
	B-9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탁월	4.0	
		우수	3.2	
		보통	2.4	
		미흡	1.6	
		매우미흡	0.8	
B-10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탁월	3.0		
	우수	2.4		
	보통	1.8		
	미흡	1.2		
	매우미흡	0.6		
기금지원의 필요성 (10)	B-11 위의 지표 및 기타 비계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 평가	탁월	10.0	위의 지표와 비계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평가 부분입니다.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합계			점 (70점)	
지원사업자 의견				



### C.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항목	지표		검토의견	
추진계획 대비 실행정도 (24)	C-1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목표의 실현 정도	탁월	8.0	지원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과 비교합니다. 지원사업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혹은 내용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축소된건 아닌지 검토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지원금신청 내역만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인쇄비에 재단 지원금을 활용하겠다고 기재했다면, 예산내역에 기재된 구체적인 홍보물도록, 팸플릿, 현수막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지표의 검토의견은 사전조사자료, 기록,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항목별 판단을 설득력있게 기술합니다.
		우수	6.4	
		보통	4.8	
		미흡	3.2	
		매우미흡	1.6	
	C-2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내용 및 규모의 실현 정도	탁월	8.0	
		우수	6.4	
		보통	4.8	
		미흡	3.2	
		매우미흡	1.6	
	C-3 교부신청서에 요청한 지원금 신청내역의 활용정도	탁월	8.0	
		우수	6.4	
보통		4.8		
미흡		3.2		
매우미흡		1.6		
기대효과 (36)	C-4 대상사업이 지원사업자에게 미치는 순기능	탁월	9.0	도민은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통해 향유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지표는 이러한 순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도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효과는 사업대상의 참여도, 즉 홍보효과와 집객을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마추어 문화예술향유 대상은 지원사업자와 관련된 가족이나 동호회원들일 경우가 많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이 활발해지고 향유계층이 넓어질수록 전문예술인의 공연이나 전시도 더불어 찾게 되어 지역문화예술 환경이 풍부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효과를 검토합니다.  네 번째 지표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의 적극성과 의지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인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우수	7.2	
		보통	5.4	
		미흡	3.6	
		매우미흡	1.8	
	C-5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탁월	9.0	
		우수	7.2	
		보통	5.4	
		미흡	3.6	
	C-6 지역문화예술 환경에 미치는 효과	탁월	9.0	
		우수	7.2	
		보통	5.4	
		미흡	3.6	
	C-7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탁월	9.0	
우수		7.2		
보통		5.4		
미흡		3.6		
매우미흡		1.8		
기금지원의 필요성 (10)	C-8 위의 지표 및 기타 비계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 평가	탁월	10.0	위의 지표와 비계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평가 부분입니다.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합계	점 (70점)			
지원사업자 의견				



#### D. 연수활동 및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항목	지표		검토의견	
추진계획 대비 실행정도 (15)	D-1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목표의 실현 정도	탁월	5.0	지원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과 비교합니다. 지원사업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축소된건 아닌지 검토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지원금 신청내역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인쇄비에 재단 지원금을 활용하겠다고 기재했다면, 예산내역에 기재된 구체적인 홍보물(도록, 팸플릿, 현수막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지표의 검토의견은 사전조사자료, 기록,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항목별 판단을 설득력있게 기술합니다.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D-2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내용 및 규모의 실현 정도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D-3 교부신청서에 요청한 지원금 신청내역의 활용 정도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프로그램의 완성도 (20)	D-4 사업수행 의지 및 노력	탁월	6.0	첫 번째 지표인 사업수행의지 및 노력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상황과 사업자의 진정성을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은 교육 대상을 고려합니다. 교육대상은 명확하며 사업내용은 교육 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위로 조정되었는지 검토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연수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자료집이나 교안을 검토합니다.
		우수	4.8	
		보통	3.6	
		미흡	2.4	
		매우미흡	1.2	
		매우미흡	1.2	
	D-5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	탁월	6.0	
		우수	4.8	
		보통	3.6	
		미흡	2.4	
		매우미흡	1.2	
		매우미흡	1.2	
	D-6 프로그램의 완성도	탁월	8.0	
		우수	6.4	
		보통	4.8	
		미흡	3.2	
		매우미흡	1.6	
		매우미흡	1.6	
기대효과 (25)	D-7 연수 및 교육참가자에게 미치는 순기능	탁월	10.0	첫 번째 지표는 지원사업이 전문예술인의 연수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에게 미치는 역량강화 효과나 창조력 증진효과 등 순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D-8 해당 장르 및 지역문화예술 환경에 미치는 효과	탁월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D-9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기금지원의 필요성 (10)	D-10 위의 지표 및 기타 비계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 평가	탁월	10.0	위의 지표와 비례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평가 부분입니다.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매우미흡	2.0	
합계	점 (70점)			
지원사업자 의견				



### E.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사업

항목	지표		검토의견	
추진계획 대비 실행정도 (15)	E-1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목표의 실현 정도	탁월	5.0	지원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과 비교합니다. 지원사업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축소된건 아닌지 검토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지원금 신청내역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인쇄비에 재단 지원금을 활용하겠다고 기재했다면, 예산내역에 기재된 구체적인 홍보물(도록, 팸플릿, 현수막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지표의 검토의견은 사전조사자료, 기록,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항목별 판단을 설득력있게 기술합니다.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E-2 사업신청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내용 및 규모의 실현 정도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E-3 교부신청서에 요청한 지원금 신청내역의 활용정도	탁월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프로그램의 완성도 (20)	E-4 사업자의 사업수행 의지 및 노력	탁월	6.0	사업자의 사업수행 의지 및 노력은 사업대상과 지원사업자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단지 사업대상을 소수자로 대상화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을 치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 소수자로 대상화하였고 그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판단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연결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프로그램이 사업대상의 환경과 필요성이 고려되어 적절한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세 번째 지표인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사업자의 전문성과 소수자의 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우수	4.8	
		보통	3.6	
		미흡	2.4	
		매우미흡	1.2	
	E-5 사업대상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탁월	6.0	
		우수	4.8	
		보통	3.6	
		미흡	2.4	
	E-6 프로그램의 완성도	매우미흡	1.2	
		탁월	8.0	
		우수	6.4	
기대효과 (25)	E-7 사업대상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보통	4.8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효과는 사업대상(소수자)의 향유기회 확대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지원사업자의 적극성과 의지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인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합니다.
		미흡	3.2	
		매우미흡	1.6	
		탁월	10.0	
		우수	8.0	
	E-8 지역문화예술 환경에 미치는 효과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탁월	10.0	
		우수	8.0	
E-9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탁월	5.0		
	우수	4.0		
기금지원의 필요성 (10)	E-10 위의 지표 및 기타 비계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 평가	보통	3.0	위의 지표와 비례량적 성과를 고려한 종합평가 부분입니다.
		미흡	2.0	
		매우미흡	1.0	
		탁월	10.0	
		우수	8.0	
합계	점 (70점)			
지원사업자 의견				



## 6. 모니터링 절차

### 6.1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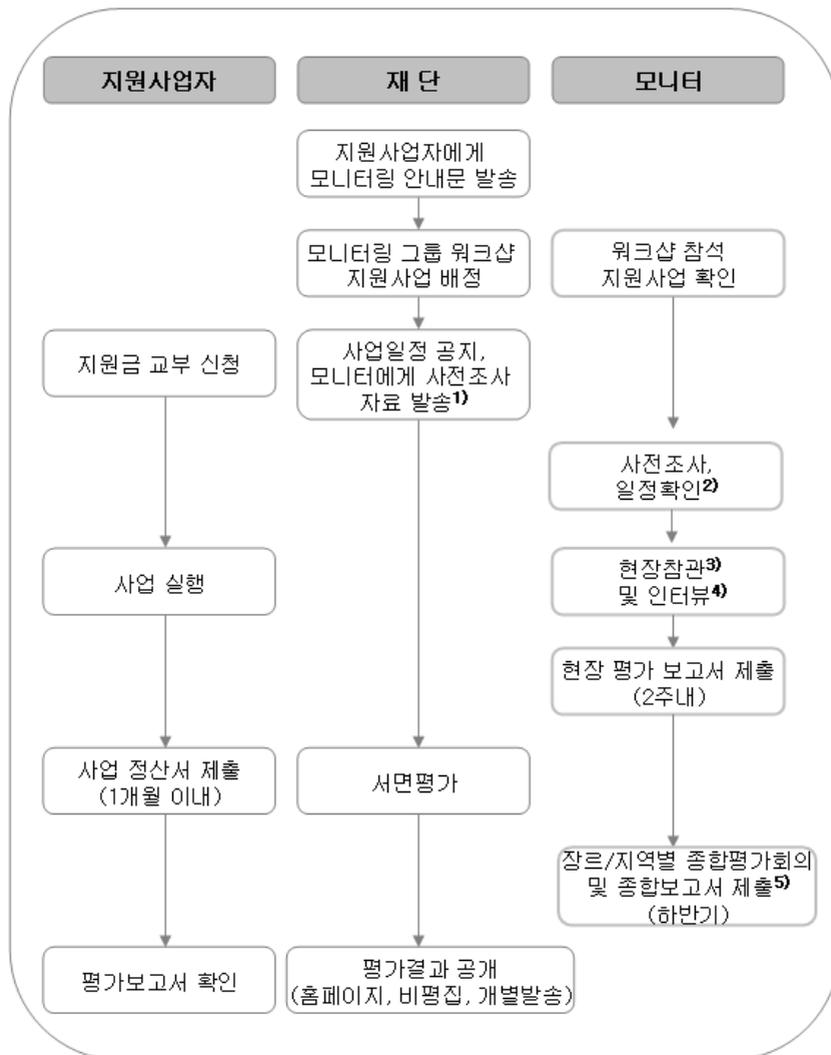


그림 7 모니터링 절차



### (1) 사전조사 자료발송

사전조사 자료는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의미한다. 지원사업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1개월 전에 재단에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커뮤니티에 사업일정을 공지하고 그룹별 운영자에게 사전조사 자료를 발송했다.

### (2) 사전조사 일정확인

사전조사는 사업현장을 참관하기에 앞서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참고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원신청서에서는 지원사업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사업목표를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비교해서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었다. 지원신청단계에서 의도했던 사업규모나 예산은 교부신청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곤 하므로 이에 따라 애초에 의도했던 사업목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 (3) 현장 참여관찰

모니터는 현장으로 가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전조사를 통해 선택한다. 노선 결정 후, 행사장으로 접근해 가면서 모니터는 그 위치와 접근성 등을 파악했으며, 교통편과 접근 과정은 글쓰기를 시작할 때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현장에 도착해서 지원사업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면 재단의 모니터임을 밝히고 인사를 나눈 뒤 관찰을 시작하도록 교육되었다.

모니터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항목들부터 조사를 실시했고,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의 부착 정도와 가시성, 프로그램 안내 책자, 교안, 교재 등이 구비되었는지, 유료 프로그램인지 무료 프로그램인지, 행사장 안내 표지 부착 정도를 확인했다. 확인된 부분은 메모를 하고 평가지표의 현장스케치 부분에 직접 기입하도록 했으며, 사전조사에서 검토한 사항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지표의 검토의견에 기재하고 행사 장소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도록 하였다.

행사의 이미지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모니터링 커뮤니티에 보고서와 함께 이미지를 두세컷 정도 올려두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야외행사라면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컷과 관객수를 가늠할 수 있는 컷, 그리고 행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컷 등 세 컷 정도면



적당하다는 것이다. 공연은 플래시의 빛이 방해가 된다면 무리해서 촬영하지 않도록 하였다. 주의 할 점으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눈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절대 추측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 (4) 보고서 작성

평가지표 작성은 사전 조사자료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대화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도록 하고 10일 이내에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였다. 이 때 추측성의 글을 절대 올리지 않도록 하였다.





## 2006년 진흥사업 및 모니터링 평가

# 04

1.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근거 : 경기문화비전 2007
2.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평가



## 2006년 진흥사업 및 모니터링 평가

### 1.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근거 : 경기문화비전 2007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의 평가 근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표된 경기문화비전에 수록되어 있는 경기도의 문화발전전략과 경기도의 문화적 상황이다. 평가 근거의 확정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무엇을 평가근거로 삼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하거나 혹은 상호 충돌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경기문화재단이 2007년 발표한 '경기문화비전 2007'을 경기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최고 정책목표라고 판단하고,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은 경기문화비전이 밝히고 있는 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위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경기문화비전'이 정책목표를 알려준다면, 2007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문화지표 조사연구와 문화향수실태조사는 경기도의 문화적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감안해 이 조사의 결과를 경기문화비전 2007과 비교하여 현실과 정책목표 사이를 비교하고자 했다.

경기문화비전에 따르면 경기도의 문화비전은 새로운 사회문화환경의 등장으로 인한 도전을 물리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경기문화비전이 탄생하게 된 사회문화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문화적 양극화 해소, 예술의 국제적 추세 흡입, 다문화사회화 대응,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문화프로그램의 수요 증가 등이다. 경기문화비전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 (2) 문화예술 창조력 신장 (3) 문화창조산업 육성 (4) 문화향유 기회와 문화복지 확대 (5) 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역점 추진과제를 밝히고 있다.



그림 8 경기문화비전



경기문화비전이 경기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가 위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2007년도에 실시된 경기도 문화지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문화적 상황은 이렇다.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중요한 위치는 문화예술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 7.2%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는 세간의 선입견과는 달리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중요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박물관 미술관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군 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예회관의 14.7%는 경기도에 있으며 문예회관은 경기도의 인구 비중(22.4%)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도시공원 부분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공원의 19.6%가 경기도에 있다(표17 참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 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시군구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현황	서울	62	113	13	29
	6개광역시	82	57	26	18
	경기도	80	98	22	18
	기타전국도	302	189	89	94
1개 기관 당 담당 인구	서울	166,081	91,124	792,077	355,069
	6개광역시	124,883	179,656	393,862	568,912
	경기도	133,715	109,155	486,237	594,290
	기타전국도	46,755	74,709	158,652	150,213

표 16 문화시설현황비교 (2007 경기도 문화지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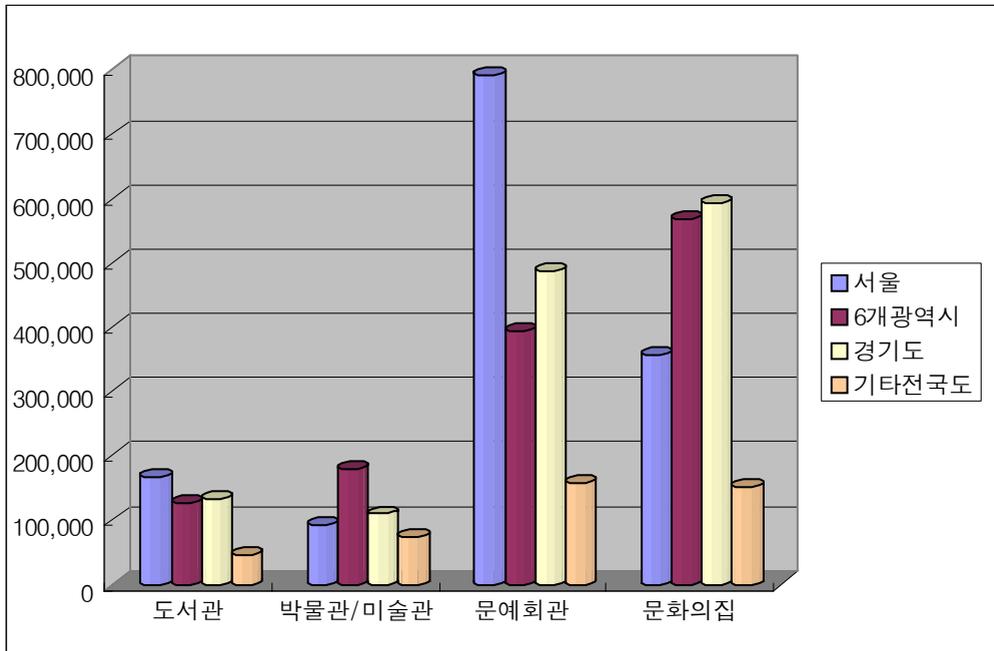


그림 9 문화시설현황비교 (2007 경기도 문화지표조사)

지표항목	경기도	전국	비중(%)
국가지정 문화재 수( '07)	217개	3,013개	7.2
문예회관 수( '05)	22개	150개	14.7
공공도서관 수( '06)	98개관	561개관	17.5
도시공원조성( '05)	5,904만m <sup>2</sup>	3억126만m <sup>2</sup>	19.6

표 17 문화관련 경기도 주요 지표

경기도에서 기타 문화기반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구비되고 있다. 문화기반 시설 중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공연시설이다. 1997년 7개에 불과했던 종합공연장은 2005년 무려 49개로 늘어났으며, 영화관 역시 1997년의 105개에서 2005년에는 326개로 늘어났다. 그 결과 경기도는 타시군부와 비교할 때 문화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지표상으로 경기도는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예술단체 수, 공연행사 수, 지역 축제 수의 면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성격	공연시설			전시		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1997	7	15	105	9	18	27	89		30	1	4
2001	11	22	142	21	12	24	138	13	31	1	6
2005	49	23	326	25	6	22	114	18	32	2	10

표 18 경기도 문화시설 현황추이 (2001, 2005 경기도 통계연보를 토대로 재구성)

지 표	순 위	비 고
문화기반시설 수	1위	
문화예술단체 수	2위	서울 1위
문화예술인 수	8위	광역시 중 1위
공연행사 수	3위	
전시행사 수	6위	
지역축제 수	2위	서울 1위

표 19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행사 순위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및 문예연감)

하지만 문화시설 이용도의 측면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내 문화시설방문횟수,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 횟수,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의향, 도내 지역축제 참여율 등에서 매우 저조한 전국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도내에서의 문화향유 실태는 저조하나 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은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항 목	순 위	비 고
도내 문화시설 방문횟수	14위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횟수	13위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의향	13위	
도내 지역축제 참여율	15위	최하위
도내 지역축제 참여의향	12위	
문화예술행사 관람회수	3위	-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관람

표 20 문화향수 실태 관련 순위 (2007 문화향수실태조사)

지표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의 문화 상황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문화기반시설 인프라를 갖고 있으나, 그에 비해 인프라의 활용도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둘째,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은 시군부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모든 유형의 문화기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과천시, 양평군, 가평군), 박물관/미술관 위주로 편향되어 있는 지역(여주군, 안성시 등), 문예회관/문화의 집 위주형(수원, 안산, 고양 등 대다수), 도서관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지역(동두천, 평택 등) 등으로 경기도 지역내 지역별 편차는 상당히 심한 편이다.

경기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비록 도내 지역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문화 인프라는 타시도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뛰어난 문화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이런 의미에서 잘 구축된 문화기반시설과 취약한 문화향수 실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수년간 문화기반시설의 구축 면에서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팽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점에서 문화기반시설 확장은 필요하고 타당한 일이다. 문화기반시설은 그 특성상 문화예술의 소통과 문화예술이 확산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기반시설의 확장에 걸 맞는 문화향수의 증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기



도의 문화환경 및 문화자원이 우수하지만 활용실태는 저조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내 문화자원의 잠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조한 활용실태는 지역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문화기반 시설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질적 수준과도 관련 있다. 경기도의 특성상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따라서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은 문화예술창작물은 경기도민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한다.

또한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에서 오는 딜레마가 있다. 경기도는 행정구역상으로 독립성을 갖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광역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타도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경기도 내부의 지역적 특성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구비정도와 활용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2.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공모지원 사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모지원의 원칙이 결정되고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공모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공모사업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본 보고서는 공모지원 사업의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0 공모지원사업 처리절차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신청주체 구분의 적절성, 지원분야 구분의 적절성, 지원예산배분의 적절성, 지원신청 영역 분류의 적절성, 지원선정 심사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공모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가 얼마나 신뢰도와 일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 2. 1 신청주체 구분의 적절성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주체의 적절성은 본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청 주체의 범위의 설정 기준에 따라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개인과 집단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을 예술인(단체), 매개자(단체), 향유자(단체)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의 신청자격을 협의의 문화예술인(단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매개자 및 향유자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민을 예술인(단체), 매개자(단체), 향유자(단체)로 구별하고 명명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비예술인/비매개자를 향유자로 명명하는 것은 직업 문화 예술인이 아닌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향유’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민들의 문화 활동을 ‘향유’로 국한시키는 것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는 분류법이라 생각된다. 비문화예술인을 향유자로 명명하고 이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라는 다소 수동적인 활동영역을 배분하는 사유방식은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을 배분하는 데에서도 다소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재의 지원방식에 따르면 예술인(단체)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확대 카테고리의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반면, 향유자는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에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매개자(단체)는 지원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가능하여, 지원 가능한 주체 간의 극단적인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진흥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공공 실험 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예술인, 매개자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육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아미추어 문화예술활동	매개자, 향유자
소수자 문화예술활동향유기회증진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문화예술인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예술인, 매개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진흥	
문화예술 조사 연구 평론활동	예술인, 매개자
문화예술정보화 활동	예술인, 매개자

표 21 2006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

만약 각 주체의 외연과 내포가 정밀하다면, 즉 해당 주체에 속하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각 주체간 신청지역의 비대칭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각 주체에 해당되는 개인 및 단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각 주체에 대한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각 주체에 대한 정의로는 ‘경기문화재단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신청안내공고’ 를 참조해볼 수 있다. 이 안내 공고에 따르면 예술인(단체)은 “문화예술 관련분야 전공자 자격증 보유자 이수자 또는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3년 이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예술가(단체)” 로 정의되어 있다. 매우 포괄적인 정의처럼 보이지만, 이 정의에서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예: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추상성은 매개자(단체)에 대한 정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매개자(단체)는 “비영리로 문화예술관련 사업을 매개하는 예술가(단체)” 로 정의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신장, 교류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소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관련 시설 운영자, 도민의 문화적 삶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나 단체, 문화예술활동을 기획하거나 보급하는 인사나 단체, 문화예술관련 전문연구자” 등이 매개자(단체)의 예시에 해당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술인(단체)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났던 추상성은 매개자(단체)에 대한 정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매개자에 대한 정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내가 매개자다” 라고 주장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다. 반면 향유자(단체)는 “경기도민” 으로 정의되어 있어 아주 분명하다.

신청주체를 문화예술인, 매개자, 향유자로 구분하는 것은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추이를 감안 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예술가/비예술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전통적 의미의 비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신청주체 구분 방식은 문화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2. 2 지원분야 구분의 적절성

현재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를 모두 9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범주는 전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공공·실험예술활동,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문화예술 교육활동,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활동,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문화예술 조사 연구 평론 활동,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범주를 구획하는 기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지원분야에는 목적성이 분명한 지원분야와 문화예술활동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혼재되어 있다.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등은 이른바 정책의 목표가 분명한 목적성 지원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목적성 지원분야 이외의 일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분야간 배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몇 가지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중첩된다. 예를 들어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과 공공 실험 예술활동은 전혀 배타적이지 않은 범주 구별이다. 이는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은 활동의 주체인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공공 실험 예술활동이 별도의 범주로 설정된 이유는 공공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창작을 지원한다는 목적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활동주체에 따른 분류와 목적에 따른 분류가 혼재되어 있기에 지원분야 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과 2) 공공 실험 예술활동은 상호 중첩된다. 예를 들어 전문예술인이 실험적이거나 공공적 예술활동을 위해 지원할 경우 지원분야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분류의 문제는 문화예술인 연수활동과 문화예술 교육활동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만약 문화예술인 연수활동과 문화예술 교육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분야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문제는 지원분야 획정에서 활동 주체라는 기준과 활동의 목적이라는 기준이 모두 사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 분류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 2. 3 지원예산 배분의 적절성

2006년 지원사업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예산이 배분된 영역은 13억9천만원이 배정된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이며,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에 4천만원으로 가장 최소치가 배분되었다. 지원예산분배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극단적인 배분 형태가 나타난다. 전체 예산의 58.14%가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에 배분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역시 15.51%에 불과하다. 기타 분야는 거의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대비 지원률	지원금 (단위:천원)	건당평균 지원액	전체비중 (%)
분야1.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32.31	1,349,000	6,104	58.14
분야2.공공·실험 예술활동	27.78	114,500	7,633	4.93
분야3.문화예술인 연수활동	68.75	64,000	5,818	2.75
분야4.문화예술 교육활동	26.92	124,000	3,543	5.34
분야5. 아마추어 문화 예술활동	43.41	360,000	3,214	15.51
분야6.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증진활동	26.19	96,500	4,386	4.15
분야7.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16.67	120,000	8,571	5.17
분야8. 문화예술 조사, 연구, 평론활동	41.94	78,000	6,000	3.36
분야9.문화예술정보화활동	30.77	14,000	3,500	0.6
계(평균)	33.01	2,320,000	5,190	

표 22 2006년 모니터링 대상사업 예산분배현황

지원액을 목적성 분야와 활동주체별 분야로 나누어 보면 전체 예산의 대다수는 목적성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활동주체에게 배분되었다. 목적성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2 공공·실험 예술활동, 분야6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증진활동, 분야7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분야9 문화예술 정보화활동에는 전체 지원 예산 중 14.85%가 지원되었고 활동주체 분야인 분야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분야3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분야4 문화예술 교육활동, 분야5 아마추어 문화 예술활동, 분야8 문화예술 조사, 연구, 평론활동에는 전체 예산의 85.15%가 배분되어 있다.

활동주체에 대한 지원과 활동목적에 대한 지원은 모두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지나친 비대칭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문화비전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별 지원 대비 목적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4 지원신청 영역 분류의 적절성

현재 지원신청영역은 아주 세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크게 문학, 출판간행, 교육훈련,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문화예술, 문화예술일반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범주별로 하위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다. 지원신청 영역은 전통적인 장르별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 구분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르간 경계를 과장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예술의 장르 구별은 예술의 탈장르화가 가속화되고 이종결합(convergence) 현상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원영역을 전통적인 예술의 장르 구별에 따라 고집할 필요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구분		지원영역
문학		시·시조, 소설, 희곡, 동화, 수필, 기타
출판간행		연구, 평론, 논문, 보고서, 매뉴얼, 교재, 기타
교육훈련		예술교육, 예술인워크숍, 예술인세미나, 교사교육, 강좌, 기타
공연 예술	음악	오페라, 기악, 성악, 음악극, 기타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기타
	연극	창작극, 번역(안)극, 마임, 뮤지컬, 인형극, 기타
시각예술		회화, 판화, 조각, 사진, 설치, 공예, 디자인, 건축, 행위예술, 디지털 영상예술, 기타
전통 문화 예술	음악	기악(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성악(판소리 가곡 가시 시조 민요), 풍물 사물놀이, 기타
	무용	전통 무용 춤, 기타
	연극	국극(창극 민요극), 민속 의례, 기타
	미술	전통회화, 서예, 전통공예, 기타
문화예술일반		문화정책, 대중문화, 생활문화, 지역(향토)문화, 정보화, 기타

표 23 현재 지원신청 영역분류



문화예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르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사실 전통적인 예술세계 내에서도 문화예술의 장르 구별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명확한 장르 구별을 창작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르 분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장르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장르 구별 때문에 지원자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과감하게 장르 구별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장르 구별은 지원당사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특정 장르로 환원될 수 없는 현대 예술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 이라 할 수 있다. 장르 구별의 ‘관행’ 으로부터의 과감한 전환과 탈피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르 구별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장르간 경계를 확실하게 하면 공모지원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르별 안배라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2. 5 지원선정 심사 기준의 적절성

현재 지원사업은 행정심사단, 사업 및 인터뷰 심사단, 시민참관단 등으로 구별되어 있어 지원사업의 심사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 및 인터뷰 심사단은 “지원분야의 사업유형 및 지원영역(장르)을 고려하여 지역성, 현장성을 충분히 파악 가능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 하며 “심사영역별로 지역인사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1차 심사(30% 반영)에서는 사업목표, 범위, 대상, 자격, 예산 등의 항목을 행정적으로 심의하고, 2차 심사(70% 반영)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심사 내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항목		심사내용
1	문화 예술적 우수성	작품의 예술성(작품수준)이 높은가? 사업의 내용에 참신성 창의성 독창성이 있는가?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2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워졌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수정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총사업비 조달계획에 현실성이 있는가?
3	기대효과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도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4	추진능력	참가자들 또는 사업주체의 역량이 뛰어난가? 지역사회에서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관계)를 얻고 있는가?

표 24 2차 심사내용 및 배점기준

심사 배점항목은 각 심사분야별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심사 항목 1의 문화예술적 우수성 항목은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지원의 목적을 문화예술적 수월성 제고에 둘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환경 창출을 통해 도내 문화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따라 문화예술적 우수성 항목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는 누가 평가하느냐, 즉 평가자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따라서 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의 과학화와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되는가의 여부이다. 전문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선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전문심사위원 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심사위원을 장르별 안배 원칙에 따라 선정하는 것은 때로는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 3.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평가

#### 3. 1 분석 방법 개관

##### (1) 분석에 포함된 평가 지표 개관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현장 참여 관찰 지표와 모니터링 평가 텍스트 자료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모니터링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객관적 지표 자료와 주관적/질적 자료로 양분될 수 있다. 특히 객관적 자료에 추가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행정 평가 지표이다(아래 참조). 행정 평가 지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 담당자가 사업규모의 일관성, 자부담율의 일관성, 지원금 요청 항목의 일관성, 정산서 제출 시기,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의 행정적 진행의 충실성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된 총괄 평가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정 평가 역시 지원된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중요 요소이므로 이를 객관적 지표 자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		장 소	
사업명		총사업비(원)	
사업기간		지원비(원)	

표 25 행정평가의 사업개요 - 실제 사업이 진행된 장소와 기간을 표시



항목	지표	배점	총점
O-1 사업규모 (4)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변경 없음	4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30% 이내 변경	3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30-60% 변경	2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60% 이상 변경 혹은 장소의 규모와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변경	1	
	교부신청서와 정산서의 사업규모 불일치	0	
O-2 자부담율(8) -신청서와 정산서 비교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변경없음	8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10% 이내 감소	6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40% 이내 감소	4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60% 이내 감소	2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60% 이상 감소	0	
O-3 지원금 요청 항목 (6) -교부신청서와 정산서	변경 없음	6	
	항목변경 50% 이내	4	
	항목변경 50% 이상	2	
	모든 항목이 경상비로 변경됨	0	
O-4 정산서 제출시기 (4)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4	
	사업 종료 후 2-6개월 이내	2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후	0	
O-5 총괄평가 (8) - 정산서의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	사업의 변경타당성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충실	8	
	사업의 변경 타당성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거나 혹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함	6	
	결과보고서의 요구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은 확인 어려움	4	
	결과보고서의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혹은 변경타당성 없음	2	
	결과보고서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며 내용이 모니터링 결과와 다름	0	
계 (30)			
검토의견			

표 26 행정평가지표 - 지원사업신청서, 교부신청서, 정산서 비교 검토



따라서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에 사용된 모니터링 자료 및 기타 평가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A. 객관적 지표

- i. 현장 참여 관찰 지표 분석: 6개 개별 분야의 특성에 따라 구성 (10개 내외의 지표 사용)
- ii. 행정 평가지표: 6개 전분야

#### B. 주관적 / 질적 지표

- i. 모니터링 수행자의 검토의견 텍스트 자료를 통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 차이를 분석하였다.

### (2) 분석의 방향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분석

: 개별 분야에서 해당 요인분석을 통해 항목-개별지표가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게 분석한다.

#### B) 현장 참여 관찰 지표와 행정평가지표의 연관성 분석한다.

#### C)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3) 분석 방법 소개

####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 i. 요인분석이란, 데이터의 양을 줄여 정보를 요약하고 변인들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따라서, 중요도가 낮은 변인을 제거하는 과정도 병행하여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인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게끔 확인(타당화)한다. 이를 위해 다변인의 요인 구조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전(rotation) 요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ii. 요인분석의 주요 과정: 전체 세부 지표를 개별 지표간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몇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가를 시각화한다.
- iii. 요인 분석 후 도출된 요인이 사전에 설정된 항목 분류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일부 불일치 발생 시 평가 지표의 재구성을 도모한다.
- iv.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분석: 도출된 요인이 하나의 지수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 B. 상관분석

: 도출된 요인 점수와 행정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지표간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수행한 행정평가 내용이 모니터링 수행자의 평가를 어떤 분야에서 잘 예측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C. 모니터링 질적 자료 분석

: LIWC라는 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 자료의 질적 분석을 도모한다. LIWC 프로그램의 소개는 이후 해당 분야에 상술되어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질적 자료의 분석은 전문가 대 시민모니터링 요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를 객관적 자료에서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 3. 2 객관적 지표 분석

- 객관적 지표의 분석은 분야별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사례수(3)가 너무 적어 통계적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독자의 편의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3장에서 소개된 2006년 모니터링 평가지표 6개 분야를 A~F로 구분하고 세부 지표들을 소개된 순서대로 A1, A2와 같은 방식으로 정렬하여 참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래 내용 중 신뢰도(Cronbach' s Alpha) 계수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0.6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 지수의 해석은 괄호안에 덧붙여 이해를 도모하였다. 신뢰도 분석과



신뢰도 계수란 여러 개의 세부 지표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서 단일 점수화 하였을 때, 이 단일 점수가 신뢰로운 것인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뢰도 계수이다.

- 또한 본문에서 사용된 상관(correlation) 계수는 두 변인 혹은 지표의 연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관계수(일반적으로 “r =” 로 표시)는 - 1.0 ~ +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양수일수록 정적인 연관성 음수일수록 부정적 연관성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0은 연관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등 복잡한 변인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서 .2를 초과하는(혹은 -.2보다 낮은) 상관계수는 두 변인 혹은 지표 간 의미있는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이 계수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지를 \*(.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혹은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의 기호를 통해 표시한다. 낮은 수준에서 유의미할수록 그 상관계수를 더욱 신뢰로운 것으로 해석한다.

## (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각·공연 분야

###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 i. 4개 항목: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15점) / 예술성(3개 지표, 30점) / 기대효과(4개 지표, 15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지표, 10)



## B.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2
A.06	.863	.060
A.04	.858	.236
A.05	.823	.185
A.08	.762	.373
A.07	.708	.388
A.11	.684	.559
A.10	.643	.434
A.09	-.001	.831
A.02	.299	.776
A.01	.493	.651
A.03	.301	.574

표 27 회전된 성분행렬(a)

- i. 요인 해석 : 예술성과 기대효과 항목은 같은 요인으로 그룹화되고 A-9의 도민의 문화에  
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지표는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 항목과 같은 요인으로 그룹화하  
여 재배치하고 최종 지표 점수를 이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 결과 해석
  - ① 요인 1 : 예술성 및 가치
  - ② 요인 2 : 효과성
  - ③ 모든 문항이 2개의 요인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평가에 사용된 세부 지표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3개의 항목이 아닌 2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iii.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 ① 요인 1: .879 (매우 신뢰)
  - ② 요인 2: .778(상당히 신뢰)
  - ③ 요인 1과 2의 신뢰도 점수가 매우 높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C. 행정평가 지표 - 요인 간 상관분석

도출된 2개 요인은 5개 행정평가 지표와 유의미한 개별 상관이 발견되지 않음. 이는 해당 분야에서 행정평가 지표가 관람 후 지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평가에 사용된 세부 지표들과 현장 평가에 사용된 세부 지표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상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

## (2)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통예술

###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 i. 4개 항목 :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15점) / 예술성(3개 지표, 30점) / 기대효과(4개 지표, 15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지표, 10)

### B. 요인분석

	요인	
	1	2
B.04	.874	-.081
B.05	.857	.170
B.01	.829	.126
B.11	.828	.195
B.08	.767	.287
B.06	.731	.448
B.10	.722	.469
B.07	.674	.392
B.02	.655	.036
B.09	-.052	.884
B.03	.295	.786

표 28 회전된 성분행렬(a)

- i. 요인 해석 : 전문예술 시각과 공연과 마찬가지로 문항 9와 3은 하나의 요인 (요인 2)으로 그룹화. 일관적으로 9번과 3번 문항이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것은 두 문항간 상관



( $r=.53$ ,  $p < .05$ )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표 평가자가 예산의 활용도와 도민의 참여 기회 확대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강한 연관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됨.

ii. 성과 기대효과 항목은 같은 요인으로 그룹화되고 A-9의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지표는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 항목과 같은 요인으로 그룹화하여 재배치하고 최종 지표 점수를 이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결과 해석

① 요인 1: 예술성 및 가치

② 요인 2: 활용도 및 기대효과

③ 모든 문항이 2개의 요인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평가에 사용된 세부 지표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3개의 항목이 아닌 2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① 요인 1: .884 (매우 신뢰)

② 요인 2: .652(중간수준의 신뢰)

③ 요인 1과 2의 신뢰도 점수가 매우 높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활용이 가능

### C. 행정평가 지표 - 요인 간 상관분석

도출된 2개 요인은 5개 행정평가 지표와 유의미한 개별 상관이 발견되지 않음. 이는 해당 분야에서 행정평가 지표가 관람 후 지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D. 행정평가 지표 - 현장평가 지표 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과 행정평가 지표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행정평가와 현장평가의 세부 지표들 간에는 아래와 같은 상관관계들이 발견되었다.

i.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B-10 ( $r = .48^*$ )

ii. 행정평가 지표 3 (지원금요청 항목의 일관성): B-01 ( $r = -.58^*$ ) / B-05 ( $r = -.52^*$ )

iii. 결과해석 : 전반적으로 행정평가에서 사업규모 변경 정도가 적을수록 향후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금 요청 항목 변경 정도가 작을수록



록 사업목표 실현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통적 기법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기법적 가치에 대한 계승성 혹은 재해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자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 (3)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 i. 4개 항목 8개 지표: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24점) / 기대효과(4개 지표, 36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문항, 10점)

#### B. 요인분석

	요인
	1
C-1	.898
C-8	.869
C-4	.858
C-2	.847
C-5	.821
C-7	.801
C-6	.741
C-3	.679

표 29

- i. 요인 해석: 전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아 평가자들은 추진 계획 대비 실현정도, 기대효과, 기금지원의 필요성 등 모든 항목을 같은 차원에서 평가한 것을 판단된다.



ii.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① 요인 1: .928(매우 신뢰)

### C. 행정평가 지표 - 요인 간 상관분석

도출된 요인은 2개 행정평가 지표와 유의미한 개별 상관을 보임: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r = .292^*$ ), 행정평가 지표 5(총괄평가,  $r = .304^*$ )

### D. 행정평가 지표 - 현장평가 지표 간 상관분석

i.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C-2 ( $r = .34^*$ )

ii. 행정평가 지표 2(자부담율 일관성): C-7 ( $r = .31^*$ )

iii. 행정평가 지표 3 (지원금요청 항목의 일관성): C-1 ( $r = .30^*$ )

iv. 행정평가 지표 5 (총괄평가): C-1 ( $r = .30^*$ ) / C-4 ( $r = .29^*$ ) / C-8 ( $r = .37^{**}$ )

v. 전반적으로 행정평가지표들과 관람 후 지표간의 유의미한 세부 상관이 다수 도출된 것으로 보아 아마추어 분야는 행정평가와 관람 후 지표간이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4) 전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연수.교육분야

###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i. 4개 항목 8개 지표: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15점) /

프로그램 완성도 (3개 지표, 20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문항, 10점)



## B. 요인분석

	요인
	1
D-1	.928
D-10	.913
D-8	.911
D-6	.877
D-2	.872
D-9	.848
D-7	.845
D-4	.842
D-5	.756
D-3	.600

표 30

- i. 요인 해석 : 전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아 평가자들은 추진 계획 대비 실현정도, 기대효과, 기금지원의 필요성 등 모든 항목을 같은 차원에서 평가한 것을 판단된다.
- ii.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 ① 요인 1: .945(매우 신뢰)

## C. 행정평가 지표 - 요인 간 상관분석

아마추어 분야와 마찬가지로 도출된 요인은 동일한 2개 행정평가 지표와 유의미한 개별 상관을 보였다.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r = .46^*$ ), 행정평가 지표 5(총괄평가,  $r = .52^{**}$ )



#### D. 행정평가 지표 - 현장평가 지표 간 상관분석

- i.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D-2 ( $r = .50^*$ ) / D-4 ( $r = .40^{**}$ ) / D-8 ( $r = .48^*$ ) / D-9 ( $r = .55^{**}$ ) / D-10 ( $r = .43^*$ )
- ii. 행정평가 지표 3 (지원금요청 항목의 일관성): D-5 ( $r = .48^*$ )
- iii. 행정평가 지표 4 (정산서 제출시기): D-5 ( $r = .47^*$ )
- iv. 행정평가 지표 5 (총괄평가): D-1 ( $r = .51^{**}$ ) / D-2 ( $r = .46^*$ ) / D-4 ( $r = .47^*$ ) / D-5 ( $r = .66^*$ ) / D-7 ( $r = .39^*$ ) / D-8 ( $r = .47^*$ ) / D-10 ( $r = .41^*$ )
- v. 아마추어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행정평가지표들과 관람 후 지표간의 유의미한 세부 상관이 다수 도출되었다. 따라서 행정평가와 현장 평가 지표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산서 제출시기와 같이 특수한 지표 외의 모든 행정지표들은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 지표(D-5)를 매우 잘 예측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5)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사업

#####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 i. 4개 항목 8개 지표 :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15점) / 프로그램 완성도 (3개 지표, 20점) / 기대효과 (3개 지표, 25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문항, 10점)



## B. 요인분석

	요인
	1
E-10	.966
E-9	.938
E-2	.923
E-6	.906
E-5	.898
E-3	.876
E-8	.864
E-1	.864
E-7	.823
E-4	.783

표 31

- i. 요인 해석 : 전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아 평가자들은 추진 계획 대비 실현정도, 기대효과, 기금지원의 필요성 등 모든 항목을 같은 차원에서 평가한 것을 판단된다.
- ii.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 ① 요인 1: .950(매우 신뢰)

## C. 행정지표 - 도출 요인간 상관분석과 행정지표

개별 평가 항목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없었으나 이는 상관분석의 특성상 너무 적은 사례수(평가자 14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론 및 제언

객관적 자료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속될 모니터링 자료 평가 사업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요인분석의 결과 모든 분야에서 모니터링 평가자들은 평가에 명시된 4개 항목보다는 작은 수의 요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제작한 현장 평가 지표의 구성이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평가자들은 1~2개의 요인, 즉 기준을 가지고 이에 부합되는가를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평가자들이 현장 평가에서 1~2개의 내적 기준에 해당 평가 대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 우수하다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지표에 저조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평가자들이 현장평가 지표를 잘못 이해했거나 평가자들이 동일한 지표에 대해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분야별 요인에 기초한 항목의 총점화된 요인들이 높은 신뢰도 계수들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용된 지표가 평가자들로 하여금 평가의 내용 자체를 혼동하거나 개인별로 다르게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사용될 지표 역시 일종의 척도이다. 척도의 개발과 사용에는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과 같은 사전 평가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본 평가 분석 결과는 차후 모니터링 평가에 사용될 지표는 제작 이전에 이러한 작업을 거쳐 보다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야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분야별 지표체계는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항목 당 배점, 지표의 수와 구성이 분야별로 상이한 것이 개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별도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평가 지표 역시 필요하다. 현재 상태의 자료로부터 도출된 각 분야 내의 개별 요인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이므로 분야 “내”에서 요인 우열 비교는 가능할지 모르나 통계적으로 요인의 표준화된 요인 점수의 총합은 항상 “0”이므로 분야 간 비교는 평균 혹은 중간값과 같은 기술 통계값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별 평가 지표의 값들은 분야의 특성에 기초한 기술 통계값들이므로 분야간 비교가 무의



미해지므로 이를 고려한 지표의 제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공연 분야의 현장평가 평균은 52.6점(70점 만점)이고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현장평가 평균은 46.4점(70점 만점)이다. 사례수를 고려했을 때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큰 차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통계 상의 차이가 평가자의 전문가 여부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분야의 특성 자체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해당 분야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 때문인가를 본 평가에 포함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분야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 가능한 지표가 사전에 설정된 예비 검사 및 제작 단계를 통해 모니터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전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연수·교육분야는 사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평가 지표와 현장 평가 지표간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한 가지 중요한 평가자 구성 차이에 존재한다. 이후에 언급될 바와 같이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각·공연 분야와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통예술 분야는 전문가 위주로, 그리고 전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연수·교육분야는 시민 모니터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 모니터링 위주의 자료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행정평가가 현장 관람 평가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는 반면, 오히려 전문가 위주의 현장 관람 평가에서는 행정평가 자료와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분야의 특성과 전문가들만의 독특한 평가 방식과 같은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자료만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이 요구된다.

넷째,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사업(평가자 14명)과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평가자 3명) 등은 너무 적은 사례 수로 인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사업 수 자체가 적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양적 자료의 보강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다수의 평가자를 동일 사업에 배치하는 등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분석에 사용된 모니터링 자료들은 지표의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신뢰도의 검증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신뢰도의 개념은 한 대상을 판단하는 다수의 평가자들이 동일한 평가를 하는가에 기초한다. 그러나 사업·평가자가 1대 1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실



태에서는 이러한 신뢰도의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매년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평가와 모니터링을 주기화하여 해당 주기에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평가자를 배치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 3. 3 주관적/질적 지표 분석:

전문가 대 비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에 대한 질적 분석

모니터링 자료 중 질적 자료에 해당하는 텍스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개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 차이를 검증하였다.

#### (1) 모니터링 자료 개관

- A) 6개 분야의 214건의 모니터링 텍스트 자료를 분석했다.
- B. 구성: 105건-비평가 / 109건-시민 모니터링
- C)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중 시각.공연 분야와 전통예술 분야는 전문가 위주, 나머지 분야는 시민모니터링 요원 위주로 구성
- D) 객관적 지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사례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격		전체
		전문가	시민모니터링	
분야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각,공연 분야	86	13	99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통예술	19	0	19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0	49	49
	전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연수,교육분야	0	30	30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사업	0	13	13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	4	0	4
전체		109	105	214

표 32 분야 - 자격 교차표

앞의 표가 나타내듯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은 개별 분야에서 매우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야별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를 시각화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편포는 분야별 비교 자체가 이미 두 집단의 편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통계적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분야별 다변량 분석을 통한 차이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 (2) 분석 프로그램 (LWC 프로그램) 소개

A.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쓰는 글(또는 말)의 방식과 내용에만 근거하여서 글쓴이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인 변인은 물론 글쓴이의 의도, 성격, 심리상태나 건강상태까지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종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사람들 간의 대화된 텍스트나 실제 대화의 녹음된 말의 내용과 방식만을 바탕으로도 대화자 간의 인구학적



변인과 관련 심리학적 변인을 알 수 있고 그 대화가 대화자 간에 서로 교감을 이루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관련된 실험상황에서 사람의 글이나 말이 의식적인 수준에서도 주요 심리학적 변인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심리학의 주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지 않아 왔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었지만(예: Freud, 1901), 일부 임상, 상담장면에서 언어분석을 통해 진단의 보조도구나 상담의 질을 평가하는 등의 언어와 제한된 관심변인 간의 관련성만을 밝히는 성과가 있었을 뿐 광범위한 심리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글을 분석하는 물리적인 단위는 언어 의미의 기본단위인 단어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쓴 글을 72개의 언어 관련 목록의 비율에 따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Pennebaker & King, 1999). 상술한 기존의 글분석 프로그램은 제한된 심리장면(예 : 심리치료)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용단어(Content Word)를 중심으로 언어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단어의 비율이나 욕구 및 성취관련 단어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하여 LIWC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3000여 개의 내용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 단어 변인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어길이, 관사, 전치사, 단어 수 등과 같이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기능 단어 변인과 대명사 관련 변인도 포함하였다(Pennebaker, Francis & Booth, 2001). 이러한 기능 단어들과 대명사 관련 변인은 전체 글의 언어구조(Linguistic Structure)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으로써 언어사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 왔다. LIWC는 기능단어들과 대명사 관련 변인을 프로그램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글분석 프로그램에서는 구별할 수 없었던 임상, 사회, 생리, 인지, 발달과 관련된 심리학의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을 추출해 내는 연구결과를 추적해 올 수 있었다.

기능 단어들을 언어학적 변인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글이나 말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심지어 덩이 글과 덩이 글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여 전체 글의 언어구조(Language structure)를 만든다. 또한 대명사도 이전 문장이나 덩이 글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을 참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많은 무의식적인 인지적 용량이 필요하다. 반면에 내용단어들은 글이나 말을 사용하면서 의식적으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기에 실험상황에서 설정한 특정 상황, 집단, 대화상대자에 따라 사용의 편차가 없을 수 있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LIWC가 기존의 내용단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분석프로그램과는 달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주요 심리학적 변인들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의 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언어학적 변인과 대명사 관련 변인을 LIWC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한 것이 주효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LIWC를 사용하여 언어사용과 주요 심리학적 변인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언어사용을 심리학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LIWC의 방대한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글 분석이 심리학적 변인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LIWC에 근거한 한국어 분석프로그램(K[Korean]-LIWC)이 개발되었다. 현재 K-LIWC를 사용한 글 분석 연구결과들은 다수의 SSCI 및 학술진흥재단 등지에 발표되었고 그 분야 역시,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글 분석 역시 이 K-LIWC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 (3) 기술통계 분석

A. LIWC 프로그램에서 한 개인의 글 분석에 필요한 최소 문장과 어절이 각각 10 개와 200 개 임을 고려할 때 214명 전원의 모니터링 자료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장	214	11	203	50.15	28.005
어절	214	223	2331	815.55	373.828
유효수 (목록별)	214				

표 33 기술통계량



#### (4) 전문가 대 시민모니터링 비교

	자격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문장	전문가	109	47.79	17.717	1,697
	시민모니터링	105	52.61	35.613	3,475
어절	전문가	109	875.74	339,039	32,474
	시민모니터링	105	753.07	398,879	38,927
형태소	전문가	109	1639.50	619,964	59,382
	시민모니터링	105	1415.50	711,621	69,447
어절/문장	전문가	109	18,598	3,1625	,3029
	시민모니터링	105	15,434	3,4228	,3340
형태소/문장	전문가	109	34,906	5,9439	,5693
	시민모니터링	105	29,379	6,7169	,6555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전문가	109	3,538	,9248	,0886
	시민모니터링	105	3,791	1,0673	,1042
긍정적인 정서	전문가	109	1,334	,5287	,0506
	시민모니터링	105	1,700	,7127	,0695
긍정적인 느낌	전문가	109	,704	,3684	,0353
	시민모니터링	105	1,021	,4710	,0460
낙천성 또는 활동성	전문가	109	,312	,2445	,0234
	시민모니터링	105	,433	,3176	,0310
부정적인 정서	전문가	109	1,529	,6525	,0625
	시민모니터링	105	1,324	,5321	,0519
불안	전문가	109	,18	,212	,020
	시민모니터링	105	,21	,273	,027
확	전문가	109	,339	,2822	,0270
	시민모니터링	105	,375	,2797	,0273



슬픔 또는 우울	전문가	109	.18	.182	.017
	시민모니터링	105	.19	.182	.018
인지적인 과정	전문가	109	5.77	1,198	.115
	시민모니터링	105	4.12	1,196	.117
원인	전문가	109	.853	.3568	.0342
	시민모니터링	105	.506	.3371	.0329
사고	전문가	109	1.95	.683	.065
	시민모니터링	105	1.37	.623	.061
기대	전문가	109	1.31	.558	.053
	시민모니터링	105	.87	.482	.047
제한	전문가	109	.734	.3353	.0321
	시민모니터링	105	.575	.3637	.0355
추측	전문가	109	1,581	.5408	.0518
	시민모니터링	105	1,170	.5323	.0519
확신	전문가	109	1,495	.4481	.0429
	시민모니터링	105	.970	.5244	.0512
감각&지각적인 과정	전문가	109	2,673	.7093	.0679
	시민모니터링	105	3,208	.9976	.0974
사회적 과정	전문가	109	3,371	.7708	.0738
	시민모니터링	105	4,445	1,2731	.1242
체면	전문가	109	.283	.1875	.0180
	시민모니터링	105	.192	.1567	.0153
의사소통	전문가	109	1,475	.4565	.0437
	시민모니터링	105	1,931	.5589	.0545
타인참조	전문가	109	.571	.3233	.0310
	시민모니터링	105	.510	.3575	.0349
또래(친구)	전문가	109	.187	.1716	.0164
	시민모니터링	105	.221	.2111	.0206
가족	전문가	109	.194	.2140	.0205



	시민모니터링	105	.342	.3774	.0368
인간	전문가	109	.513	.4552	.0436
	시민모니터링	105	.747	.4695	.0458
자기활동	전문가	109	1.647	.7666	.0734
	시민모니터링	105	2.273	1.2988	.1268
학교	전문가	109	1.161	.5852	.0560
	시민모니터링	105	1.601	.9759	.0952
직장 & 일	전문가	109	.485	.3548	.0340
	시민모니터링	105	.545	.6449	.0629
성취	전문가	109	.65	.330	.032
	시민모니터링	105	.69	.386	.038
여기활동	전문가	109	2.355	1.2430	.1191
	시민모니터링	105	2.490	1.2839	.1253
집	전문가	109	.161	.1521	.0146
	시민모니터링	105	.235	.2508	.0245
운동	전문가	109	.218	.4302	.0412
	시민모니터링	105	.180	.3245	.0317
TV & 영화	전문가	109	.514	.6164	.0590
	시민모니터링	105	.599	.7135	.0696
음악	전문가	109	.961	1.2003	.1150
	시민모니터링	105	.647	.9741	.0951
돈 & 재정적 이슈	전문가	109	.291	.3653	.0350
	시민모니터링	105	.379	.2444	.0239
신체적 상태와 기능	전문가	109	1.089	.4800	.0460
	시민모니터링	105	1.358	.5313	.0518
몸 상태와 증상	전문가	109	.869	.4574	.0438
	시민모니터링	105	1.059	.4867	.0475
성 & 성정	전문가	109	.058	.0657	.0063
	시민모니터링	105	.068	.0995	.0097



식사 & 음주 & 다이어트	전문가	109	.271	.1987	.0190
	시민모니터링	105	.277	.2118	.0207
수면 & 꿈	전문가	109	.12	.105	.010
	시민모니터링	105	.14	.147	.014
형이상학적 이슈	전문가	109	.490	.3308	.0317
	시민모니터링	105	.531	.3130	.0305
죽음	전문가	109	.228	.1497	.0143
	시민모니터링	105	.233	.1536	.0150
종교	전문가	109	.24	.310	.030
	시민모니터링	105	.22	.241	.024
속어	전문가	109	.09	.115	.011
	시민모니터링	105	.16	.266	.026
맹세어절	전문가	109	.09	.109	.010
	시민모니터링	105	.11	.194	.019
어눌한 말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문장	전문가	109	47.79	17,717	1,697
	시민모니터링	105	52.61	35,613	3,475
어절	전문가	109	875.74	339,039	32,474
	시민모니터링	105	753.07	398,879	38,927
형태소	전문가	109	1639.50	619,964	59,382
	시민모니터링	105	1415.50	711,621	69,447
어절/문장	전문가	109	18,598	3,1625	.3029
	시민모니터링	105	15,434	3,4228	.3340
형태소/문장	전문가	109	34,906	5,9439	.5693
	시민모니터링	105	29,379	6,7169	.6555
일반명사	전문가	109	26,310	2,2366	.2142



	시민모니터링	105	25,182	2,7198	.2654
고유명사	전문가	109	2,111	1,5900	.1523
	시민모니터링	105	2,098	1,1761	.1148
일반-고유명사	전문가	109	.221	.1846	.0177
	시민모니터링	105	.242	.1640	.0160
의존명사	전문가	109	.737	.2801	.0268
	시민모니터링	105	.769	.3699	.0361
지시대명사	전문가	109	.68	.311	.030
	시민모니터링	105	.37	.251	.024
인칭대명사	전문가	109	.692	.3752	.0359
	시민모니터링	105	.570	.3519	.0343
1인칭	전문가	109	.049	.0753	.0072
	시민모니터링	105	.064	.0786	.0077
2인칭	전문가	109	.01	.040	.004
	시민모니터링	105	.00	.017	.002
3인칭	전문가	109	.408	.2763	.0265
	시민모니터링	105	.245	.2349	.0229
1인칭복수	전문가	109	.089	.1293	.0124
	시민모니터링	105	.088	.1261	.0123
2인칭복수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3인칭복수	전문가	109	.02	.046	.004
	시민모니터링	105	.02	.044	.004
양수사	전문가	109	.22	.205	.020
	시민모니터링	105	.30	.299	.029
서수사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조사	전문가	109	17,938	1,2152	.1164
	시민모니터링	105	17,201	1,7480	.1706
인용조사	전문가	109	.203	.1613	.0154
	시민모니터링	105	.338	.2272	.0222
이다조사	전문가	109	1,902	.5541	.0531
	시민모니터링	105	1,070	.4466	.0436
동사	전문가	109	7,986	1,1528	.1104
	시민모니터링	105	9,430	1,5992	.1561
일반동사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자동사	전문가	109	.03	.054	.005
	시민모니터링	105	.04	.077	.008
형용사	전문가	109	2,452	.6306	.0604
	시민모니터링	105	2,472	.7326	.0715
관형사	전문가	109	.347	.2930	.0281
	시민모니터링	105	.205	.1751	.0171
수관형사	전문가	109	.593	.3584	.0343
	시민모니터링	105	1,074	.5437	.0531
일반부사	전문가	109	2,226	.5687	.0545
	시민모니터링	105	2,120	.6770	.0661
감탄사	전문가	109	.143	.1158	.0111
	시민모니터링	105	.114	.1172	.0114
접두사	전문가	109	.06	.088	.008
	시민모니터링	105	.06	.084	.008
접미사	전문가	109	.02	.050	.005
	시민모니터링	105	.04	.074	.007
어미	전문가	109	17,081	1,4581	.1397



	시민모니터링	105	16,777	1,6897	.1649
선어말어미	전문가	109	1,472	.8558	.0820
	시민모니터링	105	2,979	1,1026	.1076
한자	전문가	109	.10	.230	.022
	시민모니터링	105	.02	.060	.006
영어	전문가	109	.17	.290	.028
	시민모니터링	105	.10	.177	.017
명사추정외래어	전문가	109	1,083	.7647	.0732
	시민모니터링	105	1,007	.6559	.0640
명사추정범주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속담, 관용구, 경구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순접관계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역접관계	전문가	109	1.50	1,561	.150
	시민모니터링	105	.38	.965	.094
인과관계	전문가	109	.30	.601	.058
	시민모니터링	105	.07	.347	.034
대등병렬관계	전문가	109	1.09	1,424	.136
	시민모니터링	105	.69	1,375	.134
첨가보충관계	전문가	109	.34	.841	.081
	시민모니터링	105	.12	.359	.035
확언요약관계	전문가	109	.76	1,154	.111
	시민모니터링	105	.07	.251	.024
전환	전문가	109	.21	.528	.051
	시민모니터링	105	.03	.167	.016



예시	전문가	109	.08	.308	.030
	시민모니터링	105	.02	.137	.013

표 34 집단 통계량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문장	등분산이 가정됨	-1,261	212	.20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46	151,225	.215
어절	등분산이 가정됨	2,427	212	.01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20	203,988	.016
형태소	등분산이 가정됨	2,458	212	.01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51	205,756	.015
어절/문장	등분산이 가정됨	7,027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016	209,168	.000
형태소/문장	등분산이 가정됨	6,38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365	206,778	.000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등분산이 가정됨	-1,861	212	.06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856	205,388	.065
긍정적인 정서	등분산이 가정됨	-4,27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255	191,630	.000
긍정적인 느낌	등분산이 가정됨	-5,50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475	196,859	.000
낙천성 또는 활동성	등분산이 가정됨	-3,140	212	.00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125	195,309	.002
부정적인 정서	등분산이 가정됨	2,520	212	.01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529	206,426	.012
불안	등분산이 가정됨	-.838	212	.40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34	196,366	.405
화	등분산이 가정됨	-955	212	.34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56	211,824	.340
슬픔 또는 우울	등분산이 가정됨	-281	212	.77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81	211,672	.779
인지적인 과정	등분산이 가정됨	10,087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0,088	211,728	.000
원인	등분산이 가정됨	7,31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325	211,920	.000
사고	등분산이 가정됨	6,43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442	211,359	.000
기대	등분산이 가정됨	6,22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237	209,521	.000
제한	등분산이 가정됨	3,321	212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316	209,069	.001
추측	등분산이 가정됨	5,604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605	211,901	.000
확신	등분산이 가정됨	7,896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873	204,383	.000
감각&지각적인 과정	등분산이 가정됨	-4,52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500	187,205	.000
사회적 과정	등분산이 가정됨	-7,497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432	170,004	.000
체면	등분산이 가정됨	3,81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823	207,896	.000
의사소통	등분산이 가정됨	-6,55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526	200,769	.000
타인참조	등분산이 가정됨	1,313	212	.19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310	208,059	.192
또래(친구)	등분산이 가정됨	-1,287	212	.19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82	200,393	.201
가족	등분산이 가정됨	-3,553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519	163,300	.001
인간	등분산이 가정됨	-3,699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697	211,015	.000
자기활동	등분산이 가정됨	-4,316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277	167,365	.000
학교	등분산이 가정됨	-4,02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985	168,992	.000
직장 & 일	등분산이 가정됨	-.839	212	.40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31	160,357	.407
성취	등분산이 가정됨	-.948	212	.34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45	204,359	.346
여가활동	등분산이 가정됨	-.784	212	.43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84	210,970	.434
집	등분산이 가정됨	-2,613	212	.01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590	170,187	.010
운동	등분산이 가정됨	.734	212	.46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38	200,585	.461
TV & 영화	등분산이 가정됨	-.937	212	.35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34	205,166	.351
음악	등분산이 가정됨	2,096	212	.03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04	206,111	.037
돈 & 재정적이슈	등분산이 가정됨	-2,068	212	.04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083	189,272	.039
신체적 상태와 기능	등분산이 가정됨	-3,89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883	208,012	.000
몸 상태와 증상	등분산이 가정됨	-2,948	212	.00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944	209,922	.004
성 & 성징	등분산이 가정됨	-.855	212	.39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49	179,205	.397
식사 & 음주 & 다이어트	등분산이 가정됨	-.232	212	.81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1	209,860	.817
수면 & 꿈	등분산이 가정됨	-1,679	212	.09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668	187,552	.097
형이상학적 이슈	등분산이 가정됨	-.942	212	.34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43	211,932	.347
죽음	등분산이 가정됨	-.236	212	.81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6	211,165	.814
종교	등분산이 가정됨	.436	212	.66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38	203,188	.662
속어	등분산이 가정됨	-2,449	212	.01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17	140,409	.017
맹세어절	등분산이 가정됨	-1,132	212	.25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121	162,199	.264
일반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3,320	212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308	201,350	.001
고유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067	212	.94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68	198,893	.946
일반-고유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870	212	.38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72	210,622	.384
의존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712	212	.47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09	193,722	.479
지시대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8,02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052	205,728	.000
인칭대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2,437	212	.01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40	211,851	.016
1인칭	등분산이 가정됨	-1,444	212	.15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442	210,637	.151
2인칭	등분산이 가정됨	.621	212	.53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30	145,057	.530
3인칭	등분산이 가정됨	4,656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670	208,811	.000
1인칭복수	등분산이 가정됨	.079	212	.93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79	211,968	.937
3인칭복수	등분산이 가정됨	1,089	212	.27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090	211,964	.277
양수사	등분산이 가정됨	-2,047	212	.04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033	183,244	.043
조사	등분산이 가정됨	3,59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567	184,803	.000
인용조사	등분산이 가정됨	-5,04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009	187,040	.000
이다조사	등분산이 가정됨	12,05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106	205,647	.000
동사	등분산이 가정됨	-7,595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550	188,661	.000
자동사	등분산이 가정됨	-1,496	212	.13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486	184,752	.139
형용사	등분산이 가정됨	-.215	212	.83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5	204,924	.830
관형사	등분산이 가정됨	4,284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323	177,564	.000
수관형사	등분산이 가정됨	-7,67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621	179,084	.000
일반부사	등분산이 가정됨	1,238	212	.21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34	203,079	.219
감탄사	등분산이 가정됨	1,810	212	.07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810	211,473	.072
접두사	등분산이 가정됨	.035	212	.97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35	212,000	.972
접미사	등분산이 가정됨	-2,299	212	.02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283	181,611	.024
어미	등분산이 가정됨	1,409	212	.16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405	205,091	.162
선어말어미	등분산이 가정됨	-11,196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1,144	196,130	.000
한자	등분산이 가정됨	3,777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840	122,964	.000
영어	등분산이 가정됨	2,083	212	.03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01	179,908	.037
명사추정의외래어	등분산이 가정됨	.778	212	.43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80	209,228	.436
역접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6,254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307	181,030	.000
인과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3,502	212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535	174,083	.001
대등병렬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2,120	212	.03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22	211,999	.035
첨가보충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2,423	212	.01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54	147,191	.015
확인요약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6,034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138	118,543	.000
전환	등분산이 가정됨	3,379	212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431	130,214	.001
예시	등분산이 가정됨	1,935	212	.05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959	150,487	.052

표 35 독립표본 검정

### A. 분석 개관

클 분석 자료에 대한 LIWC 프로그램 분석 결과의 해석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 대 시민 모니터링 요원간의 비교 분석은 개별 LIWC 변인에 대한 독립 t-검증을 통해 실시되었다. 집단통계량은 개별 요인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등 기초 기술통계량을 기술한 것이고 독립표본 검증은 개별 변인에 있어서 두 집단이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나 가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일관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료는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은 수일 경우 두 집단간에 나타나는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05보다 작은 유의수준을 보이는 LIWC 변인에 대해서는 두 집단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은 매우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모두 기술하는 것은 분석 내용의 이해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므로 LIWC의 두 기본 범주인 심리적 범주와 언어적 범주에 기초하여 그 결과를 기술한다.

t검증값은 전문가 집단의 수치에서 시민모니터링 집단의 수치를 뺀 것에 기초하므로 t 검증값이 양수이며 유의수준이 낮아 유의미한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이 해당 LIWC 변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임을 의미하며, t 검증값이 음수이며 유의미한 경우에는 비전문가 집단이 해당 LIWC 변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서 가장 큰 차이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전문가 집단보다 시민 모니터링 집단은 긍정적인 정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는 전문가 집단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의미있는 차이는 인지적인 과정 변인이다. 인지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 집단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비전문가 집단은 감각과 지각적인 과정에 기초해 모니터링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가족, 인간, 자기활동, 집, 신체적 상태와 기능 등 평가자 자신과 관련된 LIWC 변인에 대해 비전문가 집단이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전문가 집단은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자신을 하나의 문화 예술활동의 대상으로 가정하고 그 가정에 기초하여 평가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C. 언어적 변인

언어적 변인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전문가 집단이 명사 위주의 모니터링을, 그리고 비전문가 집단이 동사 위주의 모니터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명사 위주의 대상 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위주로 하며 동사 위주의 대상 묘사는 그 대상의 특성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이며 인지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를 위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념을 위주로 사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주목할만한 차이는 확언 요약관계, 전환, 역접과 같은 관계사 용어의 사용과 “이다” 조사와 같은 확언적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인지적 과정의 사용과 연관이 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전문가 집단은 명사 위주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해 확언적이고 단정적인 모니터링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5) 결론 및 제언

모니터링 텍스트 자료에 대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LIWC 변인들에 대한 두 집단의 분석 결과, 두 집단은 매우 다른 모니터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이 상대적으로 인지적인 과정, 부정적인 정서, 자신의 개념을 위주로 단



정적인 평가 양상을 보인 반면, 비전문가 집단은 상대적으로 감각 및 지각적인 과정, 긍정적인 정서, 자신이 하나의 경험자라는 사실에 기초해 묘사에 충실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객관적 지표에서 전문가 집단 위주로 된 분야에서 행정평가 지표와 현장 평가 지표의 결과가 가지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집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얼핏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모니터링 자체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개별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이 가지는 정보성이 기대보다 다소 약하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은 개별 분야에서 매우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야별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편포가 분야별 비교 자체에 이미 두 집단의 편중된 분포가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변량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향후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분야별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을 고르게,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 다수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분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은 이미 객관적 지표의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이 얼마나 신뢰로운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주기화하고 매년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와 분석이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 판단된다.

## 결론 및 정책제언

### 05

1. 지원공모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2.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 결론 및 정책제언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도민들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점,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평론, 정보화, 문화예술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원대상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점 등은 문화정책의 변화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문화정책의 위상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외재성을 최대화하려는 소중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사업이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귀중하다 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불필요한 행정적 간섭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개개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간섭이라는 측면보다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 전체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니터링의 목적이 간섭이 아니라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제고임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경기문화재단의 모니터링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이다. 하지만 지원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점검해본 결과 나타난 몇 가지 제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지원공모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 (1) 지원공모사업이 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실시하는 중장기적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중장기적 비전 없이 관례적으로 매년 지원공모사업을 실시한다면,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중장기적 문화정책의 목표와 지향을 담은 경기문화비전을 입안한다면,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은 중장기 경기문화비전의 정책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 (2) 문화예술지원금 신청 기회는 현재 신청주체 별로 살펴보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매개자(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향유자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또한 예술인(단체), 매개자(단체), 향유자(단체)를 배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신청 자격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매개자/향유자라는 3분법이 변화하는 문화예술환경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문화예술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인 3분법의 타당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추이를 감안하여 전통적인 3분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전통적인 3분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각 주체(예술인/매개자/향유자)를 배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신청주체에 대한 배타적 정의가 불가능하다면 신청 주체간 신청 자격을 불균등하게 배분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주체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 (3)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사회의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변동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지원분야 구분 및 지원분야간 예산 배분 등은 재빨리 변동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변화들, 예를 들어 장르 파괴 및 혼종화 현상 아마추어와 전문예술가 사이의 경계 파괴 등의 현상 등은 지원공모사업을 디자인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화들이라 생각한다.

## 2.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교조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간섭과 평가는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모니터링 자체가 지원을 구실로 간섭하는 행위로 비취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니터링의 가능성에 대한 과대 기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원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원사업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겠지만 문화예술의



특성상 지원사업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바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으로 지적하는 문화예술의 이른바 외재적 효과는 단기간에 발휘되는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행정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경제정책과는 달리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완벽한 평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하게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가치지향적이고 논쟁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의욕이 앞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모니터링하려 하고, 과학적 모니터링을 위해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면 할수록 본래의 지원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취지에서 벗어나 모니터링 과정 자체가 지극히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과정으로 변형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체계의 객관화, 모니터링 기법의 과학화보다 정작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모니터링의 목적이다. 모니터링의 목적을 행정적 통제에 둔다면 모니터링 기법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개발해야겠지만, 모니터링의 목적이 행정적 통제가 아니라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피드백(Feed Back)에 둔다면 모니터링의 기법과 완벽하고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 평가 시스템 구축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누가 평가하는냐이다. 현재 모니터링은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각 전문가가 지닌 미학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동일한 행사에 대해 상이한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는 전문가 집단 ‘풀’에 이른바 ‘연줄’과 ‘끼리끼리’의 관행이 개입되는지의 여부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만약 전문가 집단 풀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관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모니터링 기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모니터링에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모니터링이 미학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면, 모니터링은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야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모니터링의 기준이 미학적 판단이 아니라 문화향유자에게 지원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전문가 집단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전문가 집단은 미학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반면 시민 모니터링 집단은 모니터링하는 자신을 일반적인 문화예술향유자의 눈높이에 동일시하며 모니터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만약 우리가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수월성 제고에 초점을 둔다면 전문가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으나,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에 목표를 둔다면 전문가보다 시민 모니터링 집단이 모니터링의 원래 취지에 맞는 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 전문가 집단과 시민 모니터링 집단이 모니터링에서 보여주는 모니터링에 대한 상이한 태도는 누가 옳바르고 누가 잘못되었는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혹은 왜 하는가와 관련된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의 모니터링 과정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완성되어 있고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과정이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고안되고, 기술적으로 완성된 체계를 갖추려고 하면 할수록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본 결과, 우리는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보완보다 중요한 문제는 모니터링 사업과 경기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문화비전을 연계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모니터링 기법을 선택할 것인가, 모니터링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모니터링 체계 내부에 있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가 어떤 문화정책을 지향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정책 비전속에 있다.

## 더불어 함께 일구는 문화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발행일	2007년 9월 1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김문수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전 화	031) 231-8514
홈페이지	<a href="http://review.ggcf.or.kr">http://review.ggcf.or.kr</a>
책임편집	신미라 (경기문화재단 지역정책팀)
연구작성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전공교수)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전공교수)
연구보조원	배진희 (아주대학교, 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편집디자인	예원디자인
인 쇄	삼진인쇄

‘더불어 함께 일구는 문화’ 는 해마다 발간되는 경기문화재단의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